

診家樞要에 대한 研究 II

金 憲, 朴 炅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A Study on Gin Ga Chu Yo(診家樞要) II

Heon Kim, Kyung Park

Dep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tiy

Background and purpose: Gin Ga Chu Yo(診家樞要) was written in the year 1359 by Hwal Su(滑壽) who was a famous oriental doctor between Won(元) and Myeong(明) dynasty. As specialized in sphygmology(脈學), this book was brought together most things about sphygmology(脈學) before Won(元) dynasty by the author. Moreover he added the self-realized things to this book.

Methods: In this book, besides a author's preface, there are all 20 chapters which are Chu Yo Hyeon Eon(樞要玄言), Jwa U Su Bae Jang Bu Bu Wi(左右手配臟腑部位), O Jang(五臟), Sa Si Peong Maek(四時平脈), Nae Gyeong Sam Bu Maek Beop(內經三部脈法), Ho Heup Chim Bu Jeong O Jang Beop(呼吸沈浮定五臟法), In Ji Ha Gyeong Jung I Jeong O Jang Beop(因指下輕重以定五臟法), Sam Bu So Ju(三部所主), Ji Maek Su Beop(持脈手法), Maek Gwi Yu Sin(脈貴有神), Maek Eum Yang Yu Seong(脈陰陽類成), Gyeom Hyeon Maek Ryu(兼見脈類), Je Maek Ui Gi Ryu(諸脈宜忌類), Heom Je Sa Jeung Ryu(驗諸死症類), Sa Jeol Maek Ryu(死絕脈類), O Jang Dong Ji Maek(五藏動止脈), Bu In Maek Beop(婦人脈法), So A Maek Beop(小兒脈法), Maek Sang Tong Hoe(脈象統會), Maek Sang Ga(脈象歌) and an epilogue in the end.

Result and Conclusion: Looking into this book, we can know that it is very detail in analyzing item by item, bright and simple in explaining and it is very useful in studying pulse evaluation(脈診). In his preface, Hwal Su(滑壽) expresses his opinion with firm confidence that "Do(道) of the World scattered in several scholarships and books of method and technique(方術). Nothing of method and technique(方術) is more important than medicine. Nothing of medicine goes before pulse evaluation(脈診)." With such good reasons, as a student of sphygmology(脈學), I think this book is very valuable in studying pulse evaluation. So I add Hangul suffixes(吐) to a part of this book and translate it into Korean.

Key Words: Gin Ga Chu Yo, sphygmology, pulse evaluation

I. 序 論

『診家樞要』1卷은 元末 明初의 著名한 醫家인 滑壽가 著述하였으며, 대략 元 至正 19년(1359년)에 완성된 책이다. 이 책은 오로지 脈法만을 논한 것으로, 作者가 元나라 이전의 脈學을 會通하고 아울러 자신

이 스스로 깨우쳐 心得하고 실제 임상에서 體得한 것을 結合하여 만들었다. 이 책은 「樞要玄言」, 「左右手配臟腑部位」, 「五臟」, 「四時平脈」, 「內經三部脈法」, 「呼吸沈浮定五臟法」, 「因指下輕重以定五臟法」, 「三部所主九候附」, 「持脈手法」, 「脈貴有神」, 「脈陰陽類成」, 「兼見脈類」, 「諸脈宜忌類」, 「驗諸死

症類, 「死絶脈類」, 「五藏動止脈」, 「婦人脈法」, 「小兒脈法」, 「脈象統會」, 「脈象歌」의 20篇과 「自序」, 「跋文」 2篇을 합하여 總 22篇으로 構成되어 있다.

脈은 『素問』, 『靈樞』, 『傷寒雜病論』, 『難經』, 『中藏經』 등에서 비롯하였고 王叔和는 『脈經』을 통해 脈에 대한 것을 모두 끌어 모았다. 하지만 『脈經』은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수집은 하였으나 정리되지 않아 임상 응용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後代 高陽生의 『脈訣』은 그 체계를 잡아 정리하여 암송하기 쉽고 간결하여 臨床醫들에게 널리 읽히고 쓰이게 된다. 『脈訣』이 실용적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오류가 많고 문장이 천박하다 하여 여러 비관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崔嘉彦이나 滑壽 같은 醫家들이 그 오류를 비판하면서 이런 서적을 내놓아 後世 醫家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醫學入門』의 「診脈」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滑壽의 『診家樞要』는 중요한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책 자체도 條目 하나하나 明確하게 分析하고 簡單明瞭하면서도 要點이 있어서 매우

實用的인 면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診家樞要』에 대한 研究나 國譯된 자료를 현재까지 접해보지 못하고 있는 後代 醫學에 요점 정리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되어 診脈方法을 중심으로 한 몇 篇을 校勘하여 吐와 註釋을 달고 國譯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1. 本 論文은 滑壽의 『診家樞要』를 研究한 것으로 滑壽의 生涯와 著述 및 醫學思想과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2. 原文은 中華民國 11年(1922年)에 上海의 上海廣益書局에서 編하고 癸丑文化社에서 影印한 『正校名醫指掌』에 附錄되어 있는 『訂補名醫指掌附刻診家樞要』를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文章도 모두 수 용하였다. 原書에는 長洲의 念山 邵從皋가 校訂하고 金陵의 狝宇 唐鯉飛가 梓行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校勘은 아래 <表 1>의 文獻을 涉獵하

<表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番號	編著者	書名	略稱	備考
1	上海廣益書局	訂補名醫指掌附刻診家樞要	底本	正校名醫指掌, 癸丑文化社, 서울, 1922
2	蔣力生劉春援	診家樞要	蔣劉本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歷代中醫名著文庫, 華夏出版社, 北京, 1997
3	滑壽	診家樞要	周本	蔣劉本 再引用
4	滑壽	診家樞要	餘本	餘顯廷, 脈理存眞, 蔣劉本 再引用
5	新校正本	靈樞經	靈樞	中華書局聚珍倣宋版印, 臺北, 1972
6	新校正本	素問經	素問	中華書局聚珍倣宋版印, 臺北, 1992
7	何大任 校	脈經	脈經	東洋醫學善本叢書,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8	凌耀星	難經校注	難經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9	華佗	中藏經	中藏經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5
10	王好古	此事難知	此事難知	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서울, 1991
11	張介賓	景岳全書	景岳全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8
12	李梃	編註醫學入門	醫學入門	大星文化社, 서울, 1990

였다.

4. 한 篇 가운데 내용이 複合되어 연속되지 않는 것은 章名과 節名을 붙여 나누었다.

5. 懸吐는 傳來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6. 註釋은 有關 書籍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인용하여 國譯하였다.

7. 國譯은 필요에 따라 註釋의 내용을 참고하여 意譯하였다.

8. 본 研究에 사용한 부호는 校勘에 ‘)’, 註釋에 ‘()’, 引用文獻에 ‘『』’, 引用篇과 論文에 ‘」’로 표시하였다.

Ⅲ. 研究內容

第1篇 持脈手法1)(脈을 짚는 手技法)

第1章 診脈하는 方法

【原文】

凡診脈之道는 先須調平自己氣息(1)하고 男左女右에 先以中指로 定得關位하고 却(2) 齊(3)下(4)前後二指라 初輕按하야 以消息(5)之하고 次中按하야 消息之하고 三)重按하야 消息之3) 然後에 自寸關至尺을 逐(6)部尋究(7)라 一呼一吸之間에 要以脈行 四至爲率(8)이요 閉(9)以太息(10)에 脈五至를 爲平脈也라 其有太過不及則爲病脈이니 看何部하야 各以其部로 斷之라

【校勘】

- 1) 持脈手法; 蔣劉本에는 ‘診脈之道’로 되어 있다.
- 2) 三; 蔣劉本에는 ‘再’로 되어 있다.
- 3) 三重按消息之; 蔣劉本에 餘本에는 없

다고 하였다.

【註釋】

- (1) 氣息(기식); 숨, 呼吸
- (2) 却;한 후에, 바로
- (3) 齊; 整也, 가지런할 제
- (4) 下; 自上而下, 내릴 하
- (5) 消息(소식); 脈象의 형태와 힘이 있고 없는 것을 살펴 陰陽虛實을 찾아내는 것
- (6) 逐; 逐一, 하나하나 축
- (7) 尋究(심구); 찾아 궁리함 * 尋; 繹理, 궁구할 심
- (8) 率; 數率, 彎弓之限, 활 한껏 다릴 율, 표준 율
- (9) 閉; 餘也, 나머지 윤
- (10) 太息(태식); 한숨, 심호흡

【國譯】

診脈하는 方法은 먼저 반드시 醫師 자신 의 숨을 고르게 하고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에 먼저 中指로 關部를 정한 뒤에 바로 中指 앞뒤의 검지와 약지 두 손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는다. 처음에는 가볍게, 다음에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세 번째로 무겁게 눌러서 脈搏의 動態를 살핀 뒤에 寸·關部로부터 尺部에 이르기까지를 한 부위 한 부위 순서대로 조사한다. 一呼吸에 脈이 4번 搏動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간혹 한숨을 쉴 때 脈이 5번 搏動하는 것을 正常脈으로 삼는다. 만약 이 숫자에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病脈이니 어떤 부위에 나타나는지 봐서 각 그 부위로써 診斷한다.

【考察】

『內經』, 『難經』, 『脈經』 등에는 寸·關·尺의 位置와 主病에 대한 言及은 있어도 구체적 인 診脈 方法에 대한 言及은 없으며, 『王叔

和脈訣』과 『崔氏脈訣』等에는 약간 비치긴 하나 歌訣로 되어 너무 간략하다. 다만 宋代 朱肱의 『南陽活人書』¹⁾에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있으며 本章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시대적 순서로 볼 때, 滑壽가 朱肱의 『南陽活人書』를 拔萃 引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第2章 時脈胃脈腑臟平脈

【原文】

凡診脈에 須要先識時脈胃脈과 與腑臟平脈 然後에 及于病脈이니 時脈은 謂 春三月엔 六部(1)中에 俱帶弦하고 夏三月엔 俱帶洪하고 秋三月엔 俱帶浮하고 冬三月엔 俱帶沈이오 胃脈은 謂 中按得之에 脈和緩(2)이오 腑臟平脈은 已見前章이라 凡人腑臟脈이 既平하고 胃脈和하고 又應時脈이면 乃無病者也니 反此면 爲病이라

【註釋】

(1) 六部(육부); 양손의 寸·關·尺部를 말한다.

(2) 和緩(화완); 緩和, 느슨함

【國譯】

診脈할 때 반드시 먼저 時脈, 胃脈과 腑臟의 平脈을 안 뒤에 病脈을 알아야 하니 時脈은 봄 삼 개월에는 六部 가운데 모두 弦을, 여름 삼 개월에는 洪을, 가을 삼 개월

1) “凡初下指, 先以中指端, 按得關位, 乃齊下前後二指, 爲三部脈. 前指寸口也, 後指尺部也. 若人臂長乃疏下指, 若臂短乃密. 先診寸口, 浮按消息之, 次中按消息之, 次重按消息之, 次上竟消息之, 次下竟消息之, 次推指外消息之, 次推指內消息之. 凡診脈, 以氣息平正, 方下指, 以一呼一吸, 爲一息, 其一息之間, 脈息四至, 或五至, 不大不小, 與所部分四時相應者, 爲平和脈也. 過則爲至, 不及則爲損, 損至之脈, 難經言之詳矣.”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南山堂, 서울, 1987, p.91~92

에는 浮를, 가을 삼 개월에는 沈을 띠는 것이고, 胃脈은 손가락을 중간 정도 눌렀을 때 잡히는 脈으로 그 脈象이 和緩한 것이고, 腑臟의 平脈은 이미 앞 章에서 나왔다. 무릇 사람의 腑臟脈이 이미 고르고 胃脈이 和緩하며 또 그 時期와 相應하는 脈이면 곧 病이 없는 것이니 이것과 다르게 나타나면 病脈이다.

第3章 人臂長短四時男女

【原文】

診脈之際(1)에 人臂長則疏下指하고 臂短則密下指라 三部之內에 大小浮沈遲數이 同等(2)하고 尺寸陰陽高下가 相符하고 男女左右強弱이 相應하고 四時之脈이 不相反1)을 命曰 平人이라 其或一部之內에 獨大獨小커나 偏遲偏疾커나 左右強弱之相反커나 四時男女之相背면 皆病脈也라

【校勘】

1) 反; 蔣劉本에는 ‘戾’로 되어 있다.

【註釋】

(1) 際; 際此, 때 제, ...을 하는 때 제

(2) 等; 類也, 比也, 같을 등

【國譯】

診脈할 때 그 사람의 팔뚝이 길면 손가락을 성글게 내려놓고 팔뚝이 짧으면 손가락을 조밀하게 내려놓는다. 三部 안에 大小·浮·沈·遲·數脈이 同等하고 尺寸의 陰陽 高下가 서로 符合하고 男女의 左右 強弱이 相應하고 四時의 脈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을 정상인이라 한다. 혹 一部 안에서 홀로 大 하거나 小 하거나, 지나치게 遲 하거나 疾 하

거나, 左右의 強弱이 서로 어긋나거나, 四時 男女의 脈이 相背되는 것은 모두 病脈이다.

【考察】

『醫學入門』에 “....., 男子는 , 寸脈이 洪하고 尺脈이 弱한 것이 정상이고, , 女子는 , 寸脈이 弱하고 尺脈이 洪한 것이 정상이다. 男子에게 女子脈이 나타나면 不足한 證이고, 女子에게 男子脈이 나타나면 太過한 證이니, 이러한 현상이 좌측에 나타나면 病도 좌측에 있고, 우측에 나타나면 病도 우측에 있다. , 男子는 좌측 脈이 강하고 우측 脈이 약하며, 女子는 우측 脈이 강하고 좌측 脈이 약하다²⁾.”고 하여 男女의 尺寸과 左右脈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本篇과 『醫學入門』 등에서 제시한 男女脈의 차이는 하나의 표준은 될 수 있으나, 체질의 특성, 환경 등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第4章 脈의 上下左右

【原文】

凡病之脈¹⁾이 見在上(1)을 曰上病이요 見²⁾在下(2)을 曰下病이요. 左를 曰左病이

2) “天之陽，在南而陰在北，男子面南而生於寅 則兩寸在南而得其陽，寸脈洪而尺脈弱者常也。地之陽，在北而陰在南，女子面北而生於申，則兩尺在北而得其陰，寸脈弱而尺脈洪者常也。陽強則陰弱，天之道也，反之者病。男得女脈爲不足，女得男脈爲太過，左得之病在左，右得之病在右。男左女右者，天之定位也，蓋人立形於地，故從地化，楚人尙左者夷道也。故男子左脈強而右脈弱，女子則右脈強而左脈弱。天以陰爲用，故人之左耳目，明於右耳目，地以陽爲用，故人之右手足，強於左手足，陰陽互用也，非反也。凡男子診脈，必先伸左手，女子診脈，必先伸右手。男子得陽氣多，故左脈盛，女子得陰氣多，故右脈盛。男子以左尺爲精府，女子以右尺爲血海，此天地之神化也，所以別男女決死生。叔和云：女人反此背看之，尺脈第三同斷病，是也。或不知此，陰陽五臟，倒裝者非。”

李經：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大星文化社，서울，1990，p.435-436

요 右를 曰右病이라 左脈不和면 爲病在表 爲陽 主³⁾四肢요 右脈不和면 爲病在裏 爲陰 主腹臟이니 以次推之라

【校勘】

- 1) 之脈; 蔣劉本에는 ‘脈之’로 되어 있다.
- 2) 見; 蔣劉本에는 없다.
- 3) 主; 蔣劉本에는 ‘在’로 되어 있다.

【註釋】

- (1) 上; 寸部
- (2) 下; 尺部

【國譯】

무릇 病脈이 寸部에 나타난 것을 上病, 尺部에 나타난 것을 下病, 左側에 나타난 것을 左病, 우측에 나타난 것을 右病이라 한다. 左側 脈이 정상이 아니면 病이 表에 있고 陽이 되고 四肢의 病을 主宰하고, 右側 脈이 정상이 아니면 病이 裏에 있고 陰이 되고 배속 臟器를 主宰하니 이런 순서로 미루어 본다.

【考察】

本章에서 脈의 上下가 身體의 上下의 病을 主宰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하지만 左右의 脈의 차이에 따라 左脈의 不和가 表病·陽病·四肢病, 右脈의 不和가 裏病·陰病·臟腑病을 主宰한다는 것은 左人迎右氣口의 說처럼 論難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第5章 六脈(浮沈遲數滑澁)

第1節 六脈을 잡는 理致

【原文】

凡取脈之道理는 各不同하고 脈之形狀도 又各非一이라 幾1)(1)脈之來에 必不單至하야 必曰 浮而弦 浮而數 沈而緊 沈而細之類 하나니 將何以別之오 大抵 提綱(2)之要是 不外2)浮沈遲數滑澁之六脈也니 浮沈之脈은 輕手重手而取3)之也요 遲數之脈은 以己之呼吸而取之也4)요 滑澁之脈은 則察夫往來之形也라

【校勘】

- 1) 幾; 蔣劉本에는 ‘凡’으로 되어 있다.
- 2) 外; 蔣劉本에는 ‘出’로 되어 있다.
- 3) 而取; 蔣劉本에는 ‘得’으로 되어 있다.
- 4) 之也; 周本에는 없다.

【註釋】

- (1) 幾; 庶幾, 거의 기
- (2) 提綱(제강); 提要, 大綱, 要點, 概要

【國譯】

무릇 脈을 잡는 道理는 각기 같지 않고 脈의 形狀도 또한 각기 한 가지가 아니다. 거의 脈이 올 때는 반드시 홀로 이르지 않아서 반드시 浮하면서 弦하고 浮하면서 數하고 沈하면서 緊하고 沈하면서 細하다는 식으로 말하니 장차 무엇으로 區別하는가? 診脈의 要點은 浮·沈·遲·數·滑·澁 六脈을 벗어나지 않는다. 浮脈과 沈脈은 輕手·重수로 취한다. 遲脈과 數脈은 醫師 自己의 呼吸으로 취한다. 滑脈과 澁脈은 무릇 脈이 往來하는 形狀을 살핀다.

【考察】

滑壽는 脈象을 구분하는 方法으로 浮·沈·遲·數·滑·澁 여섯 가지 脈象을 근거로 하는데, 浮·沈은 輕手와 重수에 따른 脈位の 高下로 구별하고 遲·數은 醫師 呼吸에 따른

脈數의 차이로 구별하고 滑·澁은 脈이 往來하는 脈形으로 구별한다고 하고 있다.

『醫學入門』 「診脈·總看三部脈法」에는 滑壽의 浮·沈·遲·數·滑·澁 이외에 緩·大를 더해 八要脈을 提示하고 있다. 周學海는 『重訂診家直訣』 卷上 「指法總義」에서 “무릇 脈에 四科가 있으니 位·數·形·勢이다. 位는 浮沈과 尺寸이고 數은 遲數과 促結이고 形은 長短, 廣狹, 厚薄, 粗細, 剛柔로 마치 算學家의 線面體가 있는 것과 같다. 勢는 斂舒, 伸縮, 進退, 起伏의 盛衰가 있는 것이다. 勢는 形으로 因하여 드러나는데, 斂舒는 廣狹에서 形成되고 伸縮은 長短에서 形成되고 進退는 前後에서 形成되고 起伏은 高下에서 形成되며, 盛衰는 모든 勢 가운데에 걸쳐서 剛柔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脈의 四科이다3)”고 하였고, 현대 『中醫診斷學』도 周學海의 說을 따르고 있는데 滑壽도 이 네 가지 중 이미 位·數·形의 기준을 가지고 脈象을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많은 醫家들이 脈象의 煩雜함을 簡明하게 설명하고자 根幹이 되는 脈을 제시하였는데 位·數·形·勢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周學海와 『中醫診斷學』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滑壽의 六脈도 이런 기준에서 합리적인 설명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第2節 六脈에 隸屬된 脈象들

【原文】

3) “夫脈有四科，位數形勢而已。位者，浮沈尺寸也；數者，遲數促結也；形者，長短廣狹厚薄粗細剛柔，猶算學家之有線面體也；勢者，斂舒伸縮進退起伏之有盛衰也。勢因形顯，斂舒成形於廣狹，伸縮成形於長短，進退成形於前後，起伏成形於高下，而盛衰則貫於諸勢之中以爲之剛柔者也。此所謂脈之四科也。”

周學海：重訂診家直訣，中國醫學大成，曹炳章 原輯，張琨 主校，中國中醫藥出版社，北京，1997，p.505

浮는 爲陽이니 輕手而得之也 而芤洪散大長濡弦은 皆輕手而得之之類也요 沈은 爲陰이니 重手而得之1) 而伏石短細牢實은 皆重手而得之之類也요 遲者는 一息脈三2)至 而緩結3)微弱은 皆遲之類也요 數者는 一息脈六至 而疾促은 皆數之類也4)라 或曰 滑은 類乎數이요 澁은 類乎遲라 하니 何也오 然(1)하다 脈雖似5)나 而理則殊也라 彼遲數之脈은 以呼吸으로 察其至數之疏數이요 此滑澁之脈은 則以往來로 密6)察其形狀也라 數은 爲熱이요 遲는 爲寒이요 滑은 爲血多氣少요 澁은 爲血少氣多7)니라

【校勘】

- 1) 之; 蔣劉本에 뒤에 ‘也’ 字가 있다.
- 2) 三; 蔣劉本에 餘本에 ‘二’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 3) 結; 周本에는 없다.
- 4) 數者一息脈六至, 而疾促, 皆數之類也; 底本에는 이 15字가 없으나 蔣劉本에는 있다. 앞의 遲脈이 있기 때문에 對句가 되어야 하므로 文脈上 蔣劉本을 따랐다.
- 5) 似; 蔣劉本에는 ‘是’로 되어 있다.
- 6) 密; 蔣劉本에는 없다. 文章 흐름으로 보아 衍文으로 보인다.
- 7) 血少氣多; 蔣劉本에는 ‘氣多血少’로 되어 있다.

【註釋】

- (1) 然; 臆言, 그렇다할 연

【國譯】

浮脈은 陽으로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서 잡히는 脈이니 芤·洪·散·大·長·濡·弦脈은 모두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서 잡히는 脈의 種類이고, 沈脈은 陰으로 손가락을 무겁게 눌러서 잡히는 脈이니 伏·石·短·細·牢·實脈은 모두

손을 무겁게 눌러서 잡히는 脈의 種類이고, 遲脈은 一呼吸에 脈이 3번 搏動하는 것이니 緩·結·微·弱脈은 모두 遲脈의 種類이고, 數脈은 一呼吸에 脈이 6번 搏動하는 것이니 疾·促脈은 모두 數脈의 種類이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滑脈이 數脈과 비슷하고 澁脈이 遲脈과 비슷하다 하니 어째서인가? 그렇다. 脈이 비록 비슷하나 그 理致는 다르다. 저 遲脈과 數脈은 呼吸을 기준으로 脈搏의 頻度數를 살피는 것이고, 이 滑脈과 澁脈은 脈의 往來를 기준으로 그 形狀을 살피는 것이다. 數脈은 熱, 遲脈은 寒, 滑脈은 血多氣少, 澁脈은 血少氣多를 主宰한다.

第3節 六脈의 主病

【原文】

所謂1) 提綱이 不外2)乎六字者는 蓋以其足以統夫陰陽表裏3)冷熱虛實風寒濕燥4)臟腑氣血5)也라 浮는 爲陽爲表하고 證6)은 爲風爲虛요 沈은 爲陰爲裏하고 證6)은 爲濕爲實이요 遲는 爲在臟하고 爲寒爲冷이요 數은 爲在腑하고 爲熱爲燥요 滑은 爲血有餘요 澁은 爲氣獨滯也라 人一身之變은 不越乎此니 能於是六脈之中에 以求之則疾7)病8)在人者 莫能逃焉9)이라

【校勘】

- 1) 謂; 蔣劉本에는 뒤에 ‘脈之’라고 되어 있다.
- 2) 外; 蔣劉本에는 ‘出’로 되어 있다.
- 3) 陰陽表裏; 蔣劉本에는 ‘表裏陰陽’으로 되어 있다.
- 4) 濕燥; 蔣劉本에는 ‘燥濕’으로 되어 있다.
- 5) 氣血; 蔣劉本에는 ‘血氣’로 되어 있다.

- 6) 證; 蔣劉本에는 ‘診’으로 되어 있다.
- 7) 疾; 蔣劉本에는 ‘疢’로 되어 있고 餘本에는 ‘疾’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 8) 病; 蔣劉本에는 뒤에 ‘之’ 字가 있다.
- 9) 莫能逃焉; 蔣劉本에는 뒤에 “『內經』以滑爲血少氣多, 澁爲氣少血多者, 蓋氣盛而血不能壅之則滑, 血壅而氣不能行之則澁也.”란 작은 글자의 註文이 있다.

【國譯】

提綱이 浮·沈·遲·數·滑·澁 六字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六脈으로 陰陽·表裏·冷熱·虛實·風寒·濕燥·臟腑·氣血을 충분히 統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浮脈은 陽과 表가 되고 病證은 風과 虛가 되며, 沈脈은 陰과 裏가 되고 病證은 濕과 實이 되며, 遲脈은 病이 臟에 있고 寒과 冷이 되며, 數脈은 病이 腑에 있고 熱과 燥가 되며, 滑脈은 血이 有餘한 것이고 澁脈은 氣가 홀로 滯한 것이다. 온몸의 病變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 六脈 속에서 이 病變을 구할 수 있으면 人體에 있는 病變이 도망갈 수 없다.

第6章 持脈의 舉·按·尋

【原文】

持脈之要에 有三하니 曰舉 曰按 曰尋이라 輕手循之를 曰舉요 重手取之를 曰按이요 不輕不重하야 委曲(1)求之를 曰尋이라 初持脈에 輕手候之하야 脈見皮膚之間者는 陽也 腑也며 亦心肺之應也라 重手得之하야 脈附于肉下者는 陰也요 臟也며 亦肝腎之應也라 不輕不重하야 中而取之하야 其脈應于血肉之間者는 陰陽相適하야 沖(1)和(2)之應이니 脾胃之候也라 若浮中沈之不見則委曲而求之호대 若隱若見則陰陽伏匿(3)之脈也니 三

部皆然이라

【校勘】

- 1) 沖; 蔣劉本에는 ‘中’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委曲(위곡); 자세함, 상세함
- (2) 沖和(충화); 元氣, 精氣. 또는 沖和之氣, 天地間의 調和된 氣를 말한다.
- (3) 伏匿(복닉); 숨음, 또 숨김 * 伏; 匿藏, 숨길 복 * 匿; 隱也, 숨길 익

【國譯】

脈을 짚는 要領에 3가지 있으니, ‘舉’, ‘按’, ‘尋’이다.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서 脈을 찾는 것을 舉, 손가락을 깊이 눌러서 取하는 것을 按,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하여 자세하게 찾아보는 것을 尋이라 한다. 처음 脈을 잡을 때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 살펴서 脈이 皮膚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陽이고 腑이며 또한 心肺가 응한다. 손가락을 무겁게 눌러서 脈이 肌肉 아래에 붙어서 나타나는 것은 陰이고 臟이며 또한 肝腎이 응한다. 손가락을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하여 중간 정도 취하여 그 脈이 血肉 사이와 相應하는 것은 陰陽이 서로 適合하여 調和로운 反應이니 脾胃의 徵候이다. 만약 浮·中·沈 三部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면 곧 자세히 찾아보되 만약 보일 듯 말 듯하면 陰陽이 모두 숨어버린 脈이니 三部가 모두 그러하다.

【考察】

滑壽는 寸·關·尺에서 손가락 끝으로 脈象을 살피는 指法을 舉法·按法·尋法이라 하여 提示하였다. 물론 기존 脈學書에서 言及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의를 내리고 정리

해서 기준을 삼았다는 것이 중요한데, 후세 醫家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尋法에 관해 滑壽의 說明과 다른 것도 있는데, 『中醫診斷學』에 “이 밖에도 三部脈이 특수하게 나타날 때에는 다시 점차적으로 손가락 위치를 옮겨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밀어서 찾아보아야 한다. 여기서의 ‘尋’은 찾는다(尋找)의 뜻이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누른다(中取)는 뜻이 아니다4.”고 하였으니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第7章 上下來去至止

【原文】

察脈에 須識上下來去至止六字하니 不明此六字則陰陽虛實이 不別也라 上者爲陽 來者爲陽 至者爲陽이요 下者爲陰 去者爲陰 止者爲陰也라 上者是 自尺部로 上於寸口니 陽生于陰也요 下者是 自寸口로 下于尺部니 陰生于陽也라 來者是 自骨肉之分으로 而出于皮膚之際니 氣之升也요 去者是 自皮膚之際로 而還于骨肉之分이니 氣之降也라 應曰至요 息曰止也라

【國譯】

脈을 살필 때 반드시 上·下·來·去·至·止 이 六字를 알아야 하니, 이 여섯 가지를 밝히지 못하면 陰陽과 虛實이 分別되지 않는다. 上·來·至는 陽이고, 下·去·止는 陰이다. ‘上’은 尺部에서 寸口로 올라가는 것이니 陽이 陰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下’는 寸口에서 尺部로 내려가는 것이니 陰이 陽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來’는 骨肉 부분에서 皮膚 쪽으

로 나오는 것이니 氣가 上升하는 것이고, ‘去’는 皮膚에서 骨肉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니 氣가 下降하는 것이다. 脈이 손끝에 감응되는 것을 ‘至’, 脈이 멈추는 것을 ‘止’라 한다.

【考察】

脈을 살필 때 上·下·來·去·至·止를 整理하여 提示한 것은 滑壽가 처음인 것 같다.

第8章 脈의 表裏虛實

【原文】

明脈에 須辨表裏虛實四字라 表者1)는 陽也요 腑也니 幾2)六淫(1)之邪가 襲於經絡이나 而未入于3)胃腑及臟者是 皆屬于表也라 裏는 陰也요 臟也니 幾2)七情(2)之氣가 鬱於心腹之內하야 不能越(3)散커나 飲食五味(4)之傷이 流4)于腑臟之間하야 不能通泄은 皆屬於裏也라 虛者是 元氣(5)之自虛니 精神(6)耗散하고 氣力衰竭也라 實者是 邪氣(7)之實이니 由正氣(8)之本虛에 邪得而5)乘(9)之니 非元氣之自實也라 故로 虛者是 補其正氣하고 實者是 瀉其邪氣라 經(10)文6)에 所謂 邪氣盛則實하고 精氣(11)奪(12)則虛라 하니 此는 大法也라

【校勘】

- 1) 者; 蔣劉本에는 없다.
- 2) 幾; 蔣劉本에는 ‘凡’으로 되어 있다.
- 3) 于; 蔣劉本에는 없다.
- 4) 流; 蔣劉本에는 ‘留’로 되어 있다. 뒤에 ‘不能通泄’이라 하였으므로 ‘留’가 뜻에 있어서 더 나은 것 같다.
- 5) 而; 蔣劉本에는 없다.
- 6) 文; 蔣劉本에는 없다.

4) “此外, 當三部脈有獨異時, 還必須逐漸挪移指位, 內外推尋. 尋者尋找之意, 不是中取之義.”

【註釋】

(1) 六淫(육음); 風·寒·暑·濕·燥·火 6種의 病邪를 總稱한다. ‘淫’이란 나쁘거나 지나치거나 혹은 심하다는 뜻이다. 보통 六氣가 太過不及하거나 혹은 季節이 아닐 때 나타나서 病을 유발하는 邪氣로서 外感病에 속하는 일련의 要因을 말한다.

(2) 七情(칠정); 喜·怒·憂·思·悲·恐·驚 일곱 가지 情志 活動으로서 外界 事物에 대한 인간의 精神 意識 반응이다. 病因이 되는 까닭은 이러한 활동들이 과도하고 강렬하게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失調됨으로 인해 臟腑 氣血의 機能이 均衡이 깨져 發病하기 때문이다.

(3) 越; 踰也, 넘을 월

(4) 五味(오미); 辛·酸·甘·苦·鹹 등 다섯 가지 맛을 말한다.

(5) 元氣(원기); 原氣. 元陰과 元陽의 氣를 포괄한다. 先天的으로 부여받고 後天的으로 섭취되는 營養에 의해 滋養받으며, 先天的의 精으로부터 化生되므로 이렇게 이름하였다. 元氣는 腎(命門을 포괄함)에서 발생되고 丹田에 저장되어 三焦의 통로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 五臟六腑 등의 모든 組織 器官의 活動을 推動하여 生命活動의 源泉이 된다.

(6) 精神(정신); 精과 神의 合稱이다. 인체의 生命活動력이 집중되어 있다.

(7) 邪氣(사기); 邪, 病邪. 正氣와 상반되는 말이다. 각종 發病 요인 및 그 병리손해를 가리킨다. 외부에서 인체로 침입하므로 外邪라고도 한다.

(8) 正氣(정기); 眞氣. 인체 기능의 총칭이지만, 病邪와 상대되는 말로 사용할 때는 인체의 저항력을 가리킨다.

(9) 乘(승); 虛한 틈을 타고 侵襲한다(乘襲)는 뜻이다.

襲)는 뜻이다.

(10) 經(경); 『素問·通評虛實論篇』이다.

(11) 精氣(정기); 正氣. 인체를 구성하고 生命을 유지시키는 精微 物質 및 그 機能을 가리킨다.

(12) 奪; 彊取攘奪, 억지로 빼앗을 탈

【國譯】

脈을 밝힐 때에 반드시 表·裏·虛·實 四字를 辨別해야 한다. ‘表’는 陽이고 腑이니 대개 六淫의 邪氣가 經絡에 侵襲하였으나 아직 胃腑와 臟에 侵入하지 않은 것은 모두 表에 속한다. ‘裏’는 陰이고 臟이니 대개 七情의 氣가 心腹 안에 鬱滯하여 넘쳐 흘러지지 못하거나 飲食 五味에 傷한 것이 臟腑에 머물러 流通되거나 세어나가지 못하는 것은 모두 裏에 속한다. ‘虛’는 元氣 자체가 虛한 것이니 精神이 흩어져 없어지고 氣力이 衰弱해진 것이다. ‘實’은 邪氣가 實한 것이니 正氣가 본래 虛한데 邪氣가 이를 타고 들어 오기 때문이니 이는 元氣 자체가 實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虛한 것은 그 正氣를 補하고 實한 것은 그 邪氣를 瀉한다. 『素問·通評虛實論篇』에 “邪氣가 旺盛하면 實하고 正氣가 빠져나가면 虛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大經大法이다.

第9章 脈의 陰陽相乘

【原文】

凡脈之至가 在肌肉之上하고 出于皮膚之間者는 陽也며 腑也요 行于肌肉之下者는 陰也며 臟也라 若短小而見于皮膚之間者는 陰乘陽也요 洪大而見于肌肉之下者는 陽乘陰也니 寸尺이 皆然이라

【國譯】

무릇 脈의 搏動이 肌肉 위에 있고 皮膚 사이로 나오는 것은 陽이며 腑에 속하고 肌肉 아래에서 流行하는 것은 陰이며 臟에 속한다. 만약 短小한 脈이 皮膚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陰이 陽을 乘한 것이고 洪大한 脈이 肌肉 아래에 나타나는 것은 陽이 陰을 乘한 것이니 寸·尺部가 모두 그러하다.

【考察】

먼저 脈位의 陰陽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滑壽의 說明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本書 앞의 「三部所主」에 “寸은 陽으로 人體의 上部에 해당되니 頭項 이하에서 心胸에 이르는 部分의 病을 主宰한다. 關은 陰인 尺과 陽인 寸의 가운데에 있어서 人體의 中部에 해당되니 臍腹·肘·脇 部分의 病을 主宰한다. 尺은 陰으로 下部에 해당되니 腰·足·脛·股 部分의 病을 主宰한다5).”고 하였고, 「持脈手法」에 “左側 脈이 정상이 아니면 病이 表에 있고 陽이 되고 四肢를 主宰하고, 右側 脈이 정상이 아니면 病이 裏에 있고 陰이 되고 배속 臟器을 主宰한다6).”고 하고, 또 “처음 脈을 잡을 때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 살펴서 脈이 皮膚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陽이고 腑이며 또한 心肺가 응한다. 손가락을 무겁게 눌러서 脈이 肌肉 밑에 붙어서 나타나는 것은 陰이고 臟이며 또한 肝腎이 응한다7).”고 하였다. 또 本書 뒤의 「兼見脈類」에는 “무릇 尺脈이 올라가 關部에 이르지 못하면 陰絶이 되고 寸脈이 내려가

關部에 이르지 못하면 陽絶이 되니 陰陽이 서로 끊어지면 사람이 무엇을 依支하겠는가8).”라고 하였다. 『難經·二難』과 『脈經』 卷一 「辨尺寸陰陽榮衛度數」에 “..... 關에서 尺까지가 尺內로 陰이 主宰하고, 關에서 魚際까지가 寸口內로 陽이 主宰한다. 그러므로 寸을 除外한 部分은 尺이, 尺을 除外한 部分은 寸이 된다. 그러므로 陰은 尺內의 一寸을 차지하고, 陽은 寸內의 九分을 차지하니 尺에서 寸까지의 길이는 一寸九分이다. 그러므로 尺寸이라 한다9).”고 하였고, 또 『難經·四難』에도 “..... 浮한 것은 陽이요 沈한 것은 陰이니 고로 陰陽이라고 한다. 이것이 陰陽의 法則이다10).”고 하였다.

이렇듯 脈位의 陰陽을 보면 첫째 左右에서 左手脈은 外感을 主管하니 陽이고 右手脈은 內傷을 主管하니 陰이 될 것이며, 둘째 寸·關·尺 관점에서 보면 寸部는 陽이고 尺部는 陰이며, 셋째 浮·中·沈 관점에서는 浮部는 陽이고 沈部는 陰이 될 것이다.

다만 本章은 「四難」이나 「持脈手法·舉按尋」에서 나오는 것처럼 人體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浮沈의 陰陽이 지켜져서 陽位에는 陽脈, 陰位에는 陰脈이 나타나는 것이 大經大法인데, 人體가 病이 들면 ‘短小’한 陰脈이 陽部인 ‘皮膚之間’에서 보이고 ‘洪大’한 陽脈이 陰部인 ‘肌肉之下’에서 보이는 ‘陰乘陽’과 ‘陽乘陰’이라는 陰陽의 相乘이 나타남

5) “寸爲陽，爲上部，主頭項以下，至心胸之分也。關爲陰陽之中，爲中部，主臍腹腰脇之分也。尺爲陰，爲下部，主腰足脛股之分也。”

6) “左脈不和，爲病在表，爲陽，主四肢。右脈不和，爲病在裏，爲陰，主腹臟。”

7) “初持脈，輕手候之，脈見皮膚之間者，陽也，腑也，亦心肺之應也。重手得之，脈附于肉下者，陰也，臟也，亦肝腎之應也。”

8) “凡尺脈，上不至關，爲陰絶，寸脈，下不至關，爲陽絶，陰陽相絶，人何以依。”

9) “脈有尺寸，何謂也。然。尺寸者，脈之大會要也。從關至尺，是尺內，陰之所治也。從關至魚際，是寸口內，陽之所治也。故分寸爲尺，分尺爲寸。故陰得尺內一寸，陽得寸內九分，尺寸終始，一寸九分。故曰尺寸也。”

10) “脈有陰陽之法，何謂也？然。呼出心與肺，吸入腎與肝。呼吸之間，脾受穀氣也，其脈在中。浮者陽也，沈者陰也，故曰陰陽也。..... 是陰陽之法也。”

凌耀星；難經校注，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1，p.6-7

을 설명하고 있다.

第2篇 兼見脈類¹⁾

【原文】

浮緩은 風痺(1)이요 浮大는 傷風이요 浮緊은 傷寒이라

弦數은 瘧이요 緊澁은 寒痺(2)라

數은 主熱이요 遲澁은 胃冷이라

滑數은 結熱이요 浮數은 虛熱이요 長滑은 胃熱이라

洪狀이 在右尺이면 三焦熱이라

滑은 血熱이요 微는 血崩이라

弦緊은 癥痛이요 沈弦은 癖痛이라

弦急(3)은 癖氣疝痛이요 緊而駛(4)는 刺痛이라

弦緊은 脇痛이요 滑細는 嘔吐라

緊而實은 裏痛이요 緊細在關하면 蟲痛이라

【校勘】

1) 兼見脈類; 蔣劉本에는 本篇이 없다.

【註釋】

(1) 風痺(풍비); 行痺·筋痺라고도 한다. 風·寒·濕 세 氣가 뒤섞여 이르고 이들이 결합하여 痺證이 형성된다. 그 중에서 風氣가 盛하면 行痺가 발생한다. 風痺는 上下左右로 돌아다니며 일정하지 않으므로 行痺라고도 한다.

(2) 寒痺(한비); 痛痺·骨痺라고도 한다. 風·寒·濕 세 邪氣 가운데 寒邪가 偏勝하여 氣血을 凝滯시켜 疏通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손발이 땅기면서 遲滯가 痠痛하고 疼痛의 정도가 비교적 極烈하며, 熱氣를 얻으면 약간 경감되고 寒氣를 만나면

더욱 심해진다.

(3) 急(급); 緊脈¹¹⁾.

(4) 駛(사); 疾脈과 같은 脈象¹²⁾. * 駛; 疾也, 빠를 사

【國譯】

浮緩하면 風痺, 浮大하면 傷風, 浮緊하면 傷寒이다.

弦數하면 瘧疾, 緊澁하면 寒痺이다.

數脈은 熱을 主宰하고 遲澁하면 胃가 寒冷한 것이다.

滑數하면 結熱, 浮數하면 虛熱, 長滑하면 胃熱이다.

洪한 脈象이 右尺에 있으면 三焦熱이다.

滑脈은 血熱, 微脈은 血崩을 主宰한다.

弦緊하면 癥痛, 沈弦하면 癖痛이 발생한다.

弦急하면 癖氣로 인한 疝痛이, 緊하면서 駛하면 刺痛이 발생한다.

弦緊하면 脇痛이, 滑細하면 嘔吐가 발생한다.

緊하면서 實하면 裏部의 疼痛이, 緊細한 것이 關部에 나타나면 蟲痛이 발생한다.

【原文】

寸口の 緊促은 喘逆(1)이요 緊滑은 吐逆이라

寸數은 吐요 關滑은 嘔吐라

沈濡는 停飲이요 滑細는 宿食이라

弦實은 積이요 短滑은 酒食病으로 胃寒하여 穀不消요 促結은 積聚라

肝脈의 弦緊은 筋鬱(2)이요 浮泛(3)은 中滿이라

伏不往來는 卒中(4)이요 堅(5)疾은 癲

11) 成百萬朴晷; 脈經 24種 이외의 常見主病脈, 大韓韓醫診斷學會誌, 第7卷1號, 서울, 2003, p.30

12) 朴晷 等; 譯釋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35

1)(6)病이라

洪疾은 狂病으로 二便秘하고 沈伏은 霍亂이라

尺浮大或洪도 亦然이나 尺數은 小便赤澁이라

【校勘】

1) 癩; 底本엔 ‘癩’ 字인지 ‘癩’ 字인지 구분이지 않는다. 『東醫寶鑑』 「內景篇·神」의 脈法에서 “大堅疾者, 癩狂¹³⁾.”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를 따른다.

【註釋】

(1) 喘逆(천역); 氣가 上逆하여 숨을 헐떡이는 것으로서, 喘證을 가리킨다.

(2) 筋鬱(근울); 未詳

(3) 泛; 浮也, 뜰 범

(4) 卒中(졸중); 갑자기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되지만 氣는 끊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5) 堅(견); 實脈¹⁴⁾.

(6) 癩(전); 정신이상을 가리킨다. 과도한 思慮·憂鬱로 心脾가 손상되거나 혹은 包絡이 막히고 痰熱이 心을 가로막아 발생한다. 痴呆·呆病이라고도 한다.

【國譯】

寸口가 緊促하면 喘逆이, 緊滑하면 吐逆이 발생한다.

寸部가 數하면 吐逆이, 關部가 滑하면 嘔吐가 발생한다.

沈濡하면 停飲이, 滑細하면 宿食이다.

弦實하면 積滯이고 短滑하면 酒食病으로

胃가 寒冷하여 飲食을 消化시키지 못하고 促結하면 積聚이다.

肝脈이 弦緊하면 筋鬱이고 浮泛하면 中滿이다.

伏하여 往來하지 않으면 卒中이고 堅疾하면 癩病이다.

洪疾하면 狂病으로 大小便이 나오지 않고 沈伏하면 霍亂이 발생한다.

尺部가 浮大하거나 洪한 것도 洪疾과 같이 狂病으로 大小便이 나오지 않으나 尺部가 數하면 小便이 붉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다.

【原文】

諸脈弦尺澁은 虛勞라

脈尺寸俱微면 男子엔 五勞(1)요 婦人엔 絕産이라

脈寸尺緊數은 中毒이라

脈緊盛은 傷寒이요 虛滑은 傷暑요 弦細芤遲도 亦然이라

浮緩은 傷風이요 脈洪은 病熱이요 沈緩은 中濕(2)이라

洪緊은 癰疽(3)요 洪疾은 癩疾이요 沈石은 水畜이요 急弦은 支飲(4)이라

【註釋】

(1) 五勞(오로); 久視·久臥·久坐·久立·久行 또는 志勞·思勞·心勞·憂勞·瘦勞 등 다섯 가지 過勞로 인한 발병 요인을 가리키며, 또는 五臟의 勞損, 즉 肺勞·肝勞·心勞·脾勞·腎勞 등 5가지 虛勞 病證을 가리킨다.

(2) 中濕(중습); 外感 또는 內傷에서 濕邪로 생기는 皮膚頑麻, 喘滿, 腫脹, 腰膝重痛, 肢節不利 등의 症候群을 말한다.

(3) 癰疽(옹저); 腫瘍의 색이 붉고 높이 붓고 뜨겁고 아프며, 주위의 한계가 뚜렷하고 化膿하기 전에는 瘡頭가 없고 消散되기

13) 東醫寶鑑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鑑, 許浚 著, 法仁文化社, 서울, 1999, p.181

14) 成百萬朴昊; 脈經 24種 이외의 常見主病脈, 大韓韓醫診斷學會誌, 第7卷1號, 서울, 2003, p.30

쉬운데 化膿한 뒤에는 쉽게 터지며, 터지고 나면 고름이 끈끈하고 차지며 瘡口가 쉽게 아무는 것을 癰이라 하고 陽證에 속한다. 瘡瘍이 평평하고 넓게 부어올라 피부색이 변하지 않으며, 아프거나 熱이 나지 않고 化膿하는 동안에 잘 消散되지 않으며, 化膿하여도 잘 터지지 않고, 터진 뒤에 고름이 묽으며 잘 아물지 않는 것을 疽라 하며 陰證에 속한다.

(4) 支飲(지음); 四飲의 하나. 飲邪가 胸膈 사이에 停滯되어 上部의 肺를 逼迫함으로 인해 肺의 肅降 機能이 失調되어 발생한다. 주요 症狀은 胸悶短氣하고 咳逆으로 기대야만 숨을 쉬며 바로 눕지 못하고 外形은 마치 부은 것 같이 보이거나 혹은 頭暈目眩, 面色黧黑, 心下痞堅 등이 발생한다.

【國譯】

寸關脈이 弦하고 尺部가 澁하면 虛勞이다.

尺寸脈이 모두 微하면 男子의 경우 五勞이고 婦人의 경우 絕産이 된다.

尺寸脈이 緊數하면 中毒이다.

脈이 緊하면서 힘이 있으면 傷寒이고 虛滑하면 傷暑이고 弦細朮遲도 또한 傷暑이다.

浮緩하면 傷風, 脈이 洪하면 熱病, 沈緩하면 中濕이다.

洪緊하면 癰疽, 洪疾하면 癩疾, 沈石하면 水畜, 弦急하면 支飲이 발생한다.

【原文】

傷于陽則脈浮하고 傷于陰則脈沈이라
人迎(1)緊盛하면 傷于寒이요 氣口(2)緊盛하면 傷于食이라
脈前(3)大後(3)細는 脫血也라
喜則氣緩하야 脈散하고 怒則氣上하야 脈

濡1)하고 悲則氣消하야 脈縮하고 恐則氣下하야 脈沈하고 思則氣結하야 脈短하고 憂則氣沈하야 脈澁하고 驚則氣亂하야 脈動이라
微小는 氣血虛요 大則氣血盛이라
浮洪은 外病이요 沈弦은 內病이라
長則氣治요 短則氣病이요 數則心煩(4)이요 大則病進이라

上(5)盛則氣高하고 下(5)盛則氣脹이요 代則氣衰하고 細則氣少라

脈實은 病在內요 脈虛는 病在外라

【校勘】

1) 濡; 底本에는 ‘激’으로 되어 있으나 『醫學入門診脈』의 氣口人迎脈訣을 보면 ‘濡’의 誤字임이 분명하므로 고쳤다.

【註釋】

(1) 人迎(인영); 본래는 結喉 兩傍의 頸動脈이 박동하는 곳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左手 寸口脈의 別稱이다.

(2) 氣口(기구); 본래는 寸口 또는 脈口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右手 寸口脈의 別稱이다.

(3) 前, 後(전, 후); 前後는 寸口脈의 關前과 關後를 가리키는 것으로 關前은 寸部가 되고 關後는 尺部가 된다.

(4) 心煩(심번); 煩心이라고도 한다. 心中이 煩熱, 鬱悶한 것을 말한다.

(5) 上, 下(상, 하); 寸部, 尺部를 가리킨다.

【國譯】

陽이 傷하면 脈이 浮하고 陰이 傷하면 脈이 沈하다.

人迎脈이 緊하면서 세차면 寒에 傷한 것이고 氣口脈이 緊하면서 세차면 飲食에 傷한 것이다.

寸脈이 大하고 尺脈이 細하면 脫血이다.

기쁘면 氣가 늘어져 脈이 散하고 성내면 氣가 올라가 脈이 濡하고 슬프면 氣가 消滅되어 脈이 短縮되고 두려워하면 氣가 내려가 脈이 沈하고 생각하면 氣가 맺혀 脈이 短하고 근심하면 氣가 가라앉아 脈이 澁하고 놀라면 氣가 혼란되어 脈이 動한다.

微小하면 氣血이 虛한 것이고 大하면 氣血이 旺盛한 것이다.

浮洪은 外部의 病이고 沈弦은 内部의 病이다.

長하면 氣가 잘 다스려진 것이고 短하면 氣가 病든 것이고 數하면 心煩이 발생하고 大하면 病이 進展되는 것이다.

寸部만 힘이 있으면 氣가 上昇만 하여 내려가지 못하고 尺部만 힘이 있으면 氣가 下降하여 脹滿한다.

代하면 氣가 衰殘하고 細하면 氣가 적은 것이다.

脈이 實한 것은 病이 内部에 있고 脈이 虛한 것은 病이 外部에 있다.

【考察】

左人迎右氣口說은 王叔和가 創立한 說로 後世 醫家들은 대부분 이를 追從하였지만 이를 부정하는 學者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張景岳은 통렬한 批判을 가하여 誤謬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類經·藏象類 氣口獨爲五藏主 十一』에 “寸口·氣口·脈口의 뜻에 대하여 詳考해 보건대 이는 곧 양손을 합하여 말한 것이지, 유독 右手가 氣口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¹⁵⁾.”고 하여 王叔和가 左右 寸脈으로 人迎과 氣口를 설정한 것이 誤謬임을 指摘하였다. 이것도 未盡하여 다시 논하기를 “내가 다시 詳考하건대, 人迎·

氣口脈의 근본은 모두 『內經』의 가르침이지만 人迎은 足陽明의 經脈이니 손에서 말할 수 없고, 氣口는 모두 手太陰으로 말한 것이니 左右로 나눌 수 없다. 「動輸」·「本輸」·「經脈」等篇에 ‘人迎은 結喉 양방의 胃經動脈이다.’고 밝게 指摘하였다. 내가 일찍이 「四時氣」篇에 ‘氣口로 陰을, 人迎으로 陽을 살핀다.’고 한 것과, 「五色」篇에 ‘人迎이 盛堅하면 寒氣에, 氣口가 盛堅하면 飮食에 상한 것이다.’고 한 것과, 「禁服」篇에 ‘寸口는 内部를, 人迎은 外部를 主宰한다.’고 한 것과, 「經脈終始」等篇에 ‘人迎 一盛·二盛·三盛’이라고 한 것과, ‘脈口 一盛·二盛·三盛’이라고 한 것 등을 詳考해보면 모두 ‘人迎은 陽明의 府脈으로 表部를 主宰하고, 脈口는 太陰의 藏脈으로 裏部를 主宰한다.’고 말하고 있다. 「太陰陽明論」에 ‘太陰은 三陰으로, 陽明은 三陽으로 氣를 運行시킨다.’고 하였으며, 「陰陽別論」에 ‘三陽在頭’라고 한 것은 바로 人迎이 三陽으로 氣를 運行시키는 것을 말한 것이고, ‘三陰在手’라고 한 것은 바로 脈口가 三陰으로 氣를 運行시키는 것을 말한 것이다¹⁶⁾.”고 하여 王叔和의 誤謬를 痛駁하였다.

“喜則氣緩脈散 …… 驚則氣亂脈動.”은 『素問·舉痛論』의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炆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¹⁷⁾.”을 발취 인용한

16) “再按人迎氣口之脈, 本皆經訓, 但人迎爲足陽明之脈, 不可以言於手, 氣口總手太陰而言, 不可以分左右. 如動輸本輸經脈等篇, 明指人迎爲結喉旁胃經動脈. 愚嘗考之四時氣篇曰, 氣口候陰, 人迎候陽. 五色篇曰, 人迎盛堅者, 傷於寒, 氣口盛堅者, 傷於食. 禁服篇曰, 寸口主中, 人迎主外. 經脈終始等篇曰, 人迎一盛二盛三盛, 脈口一盛二盛三盛等表, 皆言人迎爲陽明之府脈, 故主乎表. 脈爲太陰之藏脈, 故主乎裏. 如太陰陽明論曰, 太陰爲之行氣於三陰, 陽明爲之行氣於三陽. 陰陽別論曰, 三陽在頭, 正言人迎行氣於三陽也, 三陰在手, 正言脈口行氣於三陰也.”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59~60

17) 王冰: 內經素問, 臺灣中華書局, 臺北, 1992, p.306

15) “愚按氣口寸口脈口之義, 乃統兩手而言, 非獨指右手爲氣口也.”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59

것이다. 「舉痛論」은 九氣에 따른 氣 순환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고 滑壽는 그 변화에 따른 脈象까지 제시한 것이다.

“上盛則氣高，下盛則氣脹，代則氣衰，細則氣少¹⁸⁾.”는 『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오는데, 여기 上과 下는 寸口脈을 가리키는 것으로 역대 註釋家들이 일치하지만, 王冰·張志聰·高世栻은 上을 ‘寸’, 下를 ‘尺’으로 보았고, 馬蒔는 上을 ‘寸’, 下를 ‘尺’으로 보았고, 張景岳은 上을 ‘寸’, 下를 ‘關尺’으로 보고 있다.¹⁹⁾ 여기는 王冰 等の 설명을 따랐다.

【原文】

尺中沈細는 下焦寒하여 小便數하고 病痛上迫痢(1)라

沈遲는 腹臟寒痛이요 微弱은 中寒少氣라

洪大緊急은 病在外니 若(2)頭痛하고 發癰疽라 細小而緊急은 病在中이니 寒疝瘕聚(3)痛이라

浮大는 傷風鼻塞이라

【註釋】

(1) 病痛上迫痢(병통상박리); 未詳.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므로 國譯하지 않았다.

(2) 若; 乃也, 곧 약. 빛, 혹은

(3) 瘕聚(가취); 任脈에 病邪를 받아들여 發生하는 證候이다. 少腹에 땀땀한 덩어리가 생기는데, 손으로 밀면 移動하고 痛症部位가 一定하지 않다.

【國譯】

尺中이 沈細하면 下焦가 寒冷하여 小便이 잦아지고 病痛上迫痢(아프면서 急迫하게 下

痢하는 것을 앓는다.)가 발생한다.

沈遲하면 腹內 臟腑가 寒冷하며 아프고 微弱하면 中寒少氣가 발생한다.

洪大하면서 緊急하면 病이 外部에 있는 것이니 곧 頭痛과 癰疽가 발생한다. 細小하면서 緊急하면 病이 內部에 있는 것이니 寒疝·瘕聚痛이 발생한다.

浮大하면 風寒邪에 傷하여 鼻塞이 발생한다.

【考察】

“浮大, 傷風鼻塞.”이라 하였는데, 「內外傷辨」에 “外傷은 코로 證들이 나타나므로 傷寒은 코가 막히고 傷風은 콧물을 흘리며 비록 먹지는 못하나 또한 맛은 안다²⁰⁾.”고 한 것을 보면 ‘傷風’에는 ‘流涕’가 발생하여야 하고 ‘鼻塞’은 본래 ‘傷寒’에 속한다. 本篇에 있어서는 風邪와 寒邪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國譯도 이를 따랐다.

【原文】

諸浮 諸緊 諸沈 諸弦 諸遲 諸澁이 若在寸口면 膈以上病이요 在關中하면 胃以下病이요 在尺內¹⁾면 臍以下病이라

凡尺脈이 上不至關하면 爲陰絶이고 寸脈이 下不至關하면 爲陽絶이니 陰陽相絶하면 人何以依오

以上諸脈은 各隨寸關尺及臟腑部分하여 以言病之所在也라

【校勘】

1) 尺內(척내); 底本에는 ‘寸內’로 되어 있으나 寸關尺으로 논한 것으로 誤字가 분명하므로 고쳤다.

18) 王冰; 內經素問, 臺灣中華書局, 臺北, 1992, p.142

19) 韓成圭·朴炅; 脈要精微論, 素問研究集成 第二卷,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益山, 2001, p.130-131

20) “外傷證, 顯在鼻, 傷寒鼻塞, 傷風流涕, 雖不能食而亦知味.”
朴炅; 診斷學權輿, 大星醫學社, 서울, 2000, p.194

【國譯】

모든 浮·緊·沈·弦·遲·澁脈이 만약 寸口에 나타나면 膈膜 이상의 病이고, 關中에 나타나면 胃 이하의 病이고, 尺內에 나타나면 臍下의 病이다.

무릇 尺脈이 위로 關部에 이르지 못하면 陰絶이고 寸脈이 아래로 關部에 이르지 못하면 陽絶이니 陰陽이 서로 끊어지면 사람이 무엇을 依支하겠는가.

이상 모든 脈은 각기 寸·關·尺과 臟腑의 部分을 따라서 病의 所在를 말한 것이다.

第3篇 諸脈宜忌類1)

【原文】

傷寒熱病엔 宜洪大하고 忌沈細라
 咳嗽엔 宜浮濡하고 忌沈伏이라
 腹脹엔 宜浮하고 忌虛小라
 下痢엔 宜微小하고 忌浮大洪이라
 狂疾엔 宜實大하고 忌沈細라
 霍亂엔 宜浮洪하고 忌微遲라
 消渴(1)엔 宜數大하고 忌虛小라
 水氣엔 宜浮大하고 忌沈細라
 鼻衄엔 宜沈細하고 忌浮大弦이라
 最(2)頭痛엔 宜浮滑하고 忌短澁2)이라
 中風엔 宜遲浮하고 忌急實大數이라
 喘急엔 宜浮滑하고 忌澁脈이라
 唾血(3)엔 宜沈弱하고 忌實大라
 上氣(4)浮腫(5)엔 宜沈滑하고 忌微細라
 中惡(6)엔 宜緊細하고 忌浮大라
 金瘡(7)엔 宜微細하고 忌緊數이라
 中毒엔 宜洪大하고 忌微細라

【校勘】

- 1) 諸脈宜忌類; 蔣劉本에는 本篇이 없다.
- 2) 最頭痛, 宜浮滑, 忌短澁; 뒤에 “頭痛,

宜浮滑, 忌短澁.”이 또 나온다.

【註釋】

(1) 消渴(소갈); 물과 음식을 많이 마시고 먹으나 몸은 마르고 小便量이 많은 病證이다. 消는 물체가 불에 타서 없어지듯 熱에 의하여 몸이 마른다는 뜻이고, 渴은 목이 몹시 마른다는 뜻이다.

(2) 最; 都凡, 모두 최, 대개 최

(3) 唾血(타혈); 唾衄이라고도 한다. 痰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 또 血이 唾液을 따라 나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4) 上氣(상기); 呼氣가 많고 吸氣가 적어 呼吸이 喘急함을 말하며 이는 肺經이 邪氣를 받아 氣道가 不利한 證候이다.

(5) 浮腫(부종); 水腫·虛浮라고도 하며 대 부분 肺脾腎의 臟氣가 虛弱하여 발생된다.

(6) 中惡(중악); 客忤·卒忤라고도 한다. 나쁜 毒 혹은 나쁜 기운을 感觸하여 갑자기 厥逆, 人事不省 症狀이 발생하는 病證을 가리킨다.

(7) 金瘡(금창); 金創·칼·도끼 등의 쇠붙이에 의해 다친 상처를 가리키는데, 刃傷·金傷·金刀傷·金瘍이라고도 한다. 또한 상처가 생긴 후에 毒邪에 感染되어 짓물러 터진 것도 金瘡 혹은 金瘍이라 한다.

【國譯】

傷寒 熱病에 洪大脈이 의당하고 沈細脈을 꺼린다.

咳嗽에 浮濡脈이 의당하고 沈伏脈을 꺼린다.

腹脹에 浮脈이 의당하고 虛小脈을 꺼린다.

下痢에 微小脈이 의당하고 浮大洪脈을 꺼린다.

狂疾에 實大脈이 의당하고 沈細脈을 꺼린다.

霍亂에 浮洪脈이 의당하고 微遲脈을 꺼린다.

消渴에 數大脈이 의당하고 虛小脈을 꺼린다.

水氣에 浮大脈이 의당하고 沈細脈을 꺼린다.

鼻衄에 沈細脈이 의당하고 浮大弦脈을 꺼린다.

모든 頭痛에 浮滑脈이 의당하고 短澁脈을 꺼린다.

中風에 遲浮脈이 의당하고 急實大數을 꺼린다.

喘急에 浮滑脈이 의당하고 澁脈을 꺼린다.

唾血에 沈弱脈이 의당하고 實大脈을 꺼린다.

上氣와 浮腫에 沈滑脈이 의당하고 微細脈을 꺼린다.

中惡에 緊細脈이 의당하고 浮大脈을 꺼린다.

金瘡에 微細脈이 의당하고 緊數脈을 꺼린다.

中毒에 洪大脈이 의당하고 微細脈을 꺼린다.

【原文】

婦人帶下엔 宜遲滑하고 忌浮虛라

婦人已產脈엔 宜小實하고 忌虛浮라 又云 宜沈細緩滑微小하고 忌實大弦急牢緊이라

腸癖(1)下膿血엔 宜浮小流連(2)하고 忌數疾이요 及大發熱吐血衄血엔 宜沈小弱하고 忌實大라

墜墮內傷(3)엔 宜緊弦하고 忌小弱이라

頭痛엔 宜浮滑하고 忌短澁이라

風痺痿厥(4)엔 宜虛濡하고 忌緊急疾이라

溫病(5)發熱甚엔 忌反小라

下痢身熱엔 忌數이라

腹中有積엔 忌虛弱이라

病熱脈靜하고 泄而脈大하고 脫血而脈實하고 病在中에 脈虛하고 病在外에 脈澁은 皆所忌也라 又云 腹痛엔 宜細小遲하고 忌堅大疾이라

【註釋】

(1) 腸癖(장벽); 腸澼. 痢疾의 古名이며 澼下라고도 한다. 腸澼은 腸內에 積滯가 있어서 排便時에 澼澼하고 소리가 나는 것을 形容한 것이다. 대개 腸內가 虛한데 生冷物이나 불결한 음식을 섭취하므로 濕熱이 내부에 쌓이고 毒이 腸中에 留滯되어 발생한 다.

(2) 流連(유련); 물이 흐르는 모양이다. 이것은 脈氣가 물이 흐르듯 斷絶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²¹⁾.

(3) 內傷(내상); 病因의 하나. 넓게는 內部的 臟氣를 損傷시켜 發病하게 하는 요소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七情不節, 飢餓, 飽食, 勞倦, 房事過度 등이다.

(4) 痿厥(위궤); 痿證의 하나로 手足이 萎弱無力하고 寒冷하다. 또 痿證과 厥證의 合稱이기도 하다.

(5) 溫病(온병); 각종 外感急性熱病의 總稱이다. 後世에 溫熱病이라 불렀다. 溫病은 일반적으로 發病이 비교적 신속하고 發熱이 심하며, 傳變이 빠르고 쉽게 燥邪로 변하여 津液을 損傷시키며, 後期에는 대부분 陰液을 枯竭시킨다. 또 봄철에 발생하는 熱性病을 가리키기도 한다.

【國譯】

21) “水流動貌. 此指脈氣流動不絶.”

沈炎南: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135

婦人の帶下に 遲滑脈이 의당하고 浮虛脈을 꺼린다.

婦人이 出産한 뒤의 脈에 小實脈이 의당하고 虛浮脈을 꺼린다. 또 沈細緩滑微小脈에 의당하고 實大弦緊牢緊脈을 忌한다고 하였다.

腸癰으로 膿血이 나올 때에 浮小하면서 流連한 脈은 의당하고 數疾脈을 꺼린다. 더 불어 大熱이 날 때의 吐血과 衄血에 沈小弱脈이 의당하고 實大脈을 꺼린다.

떨어져서 안이 傷한 것에 緊弦脈이 의당하고 小弱脈을 꺼린다.

頭痛에 浮滑脈이 의당하고 短澁脈을 꺼린다.

風痺의 痿厥에 虛濡脈이 의당하고 緊急疾脈을 꺼린다.

溫病으로 發熱이 甚한 데 脈이 도리어 小한 것을 꺼린다.

下痢의 身熱에 數脈을 꺼린다.

腹中에 積이 있는 것에 虛弱脈을 꺼린다.

熱病이나 脈이 靜하고 泄하나 脈이 大하고 脫血이나 脈이 實하고 病이 가운데에 있는데 脈이 虛하고 病이 바깥에 있는데 脈이 澁한 것은 모두 꺼리는 바이다. 또 腹痛에 細小遲脈이 의당하고 堅大疾脈을 꺼린다고 하였다.

第4篇 驗諸死症類)

【原文】

溫病에 攘攘(1)大熱이나 脈細小者는 死2)라

頭目痛에 卒視無所見者는 死3)라

溫病에 汗不出과 出不至足4)은 死라

病瘡久하야 腰脊强急痠癢(2)者는 不可治5)라

熱病에 已得治하야 脈安靜者는 生하고 脈燥者는 危요 及大熱不去者도 亦危6)라

嗽脫形發熱에 脈堅急者는 死하고 皮肉着骨者도 死7)라

熱病 七八日에 當汗이나 反不得汗하고 脈絶者는 死라

形瘦脈大하고 胸中多氣者는 死8)라

眞臟脈(3)見者는 死라

【校勘】

1) 驗諸死症類; 蔣劉本에는 本篇이 없다. 滑壽가 『內經』과 『脈經』 등에 나온 여러 가지 死證 가운데, 篇名 그대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2) 溫病, 攘攘大熱, 脈細小者, 死; 『脈經』 卷四 「診百病死生決」에는 “溫病, 穰穰²²⁾大熱, 其脈細小者, 死.”로 되어 있다.

3) 頭目痛, 卒視無所見者, 死; 『脈經』에는 “診頭痛目痛, 久視無所見者, 死.”로 되어 있다.

4) 足; 『脈經』에는 뒤에 ‘者’ 字가 있다.

5) 病瘡久, 腰脊强急痠癢者, 不可治; 『脈經』에는 “病瘡, 腰脊强急痠癢者, 皆不可治.”로 되어 있다.

6) 熱病, 已得治, 脈安靜者, 生, 脈燥者, 危, 及大熱不去者, 亦危; 『脈經』에는 “熱病, 已得汗, 脈靜安者, 生, 脈躁者, 難治. 熱病, 已得汗, 常大熱不去者, 亦死.”로 되어 있다.

7) 嗽脫形發熱, 脈堅急者, 死, 皮肉着骨者, 死; 『脈經』에는 “咳脫形發熱, 脈小堅急者, 死, 肌瘦下脫形, 熱不去者, 死.”로 되어 있다.

8) 形瘦脈大, 胸中多氣者, 死; 『素問·三部九候論』에 나온다.

22) 穰穰(양양); 많은 모양, 넉넉한 모양 * 穰: 凡物豐盛曰穰, 풍년들 양穰, 衆也, 많을 양

【註釋】

(1) 攘攘(영영); 혼란한 모양(=壤壤) *攘; 搶攘, 亂貌, 어수선할 영

(2) 瘈瘲(계증); 속칭 抽風이라 하며, 小兒驚風의 하나의 症狀이다. 瘈는 근육이 땅기며 攣縮이 되는 것이고, 瘲은 근육이 弛緩되어 늘어지는 것이다.

(3) 眞臟脈(진장맥); 眞脈이라고도 한다. 五臟의 眞氣가 심하게 노출된 脈象이다. 五臟의 病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해당하는 臟器의 精氣가 衰殘해지고, 胃氣가 끊어지게 되므로 각각 특수한 脈象을 나타내는데 모두 胃·神·根의 脈氣가 없으며 특히 緩和되고 부드러운 脈象이 없다.

【國譯】

溫病이 정신 못 차리도록 高熱이 나나 脈이 細小하면 죽는다.

頭目痛에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죽는다.

溫病에 땀이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발까지 나지 않으면 죽는다.

오래된 瘧疾에 腰脊이 強急하고 痙攣이 일면 치료할 수 없다.

熱病에 이미 治療를 해서 脈이 安靜되면 살고 脈이 躁急하면 죽고, 심한 高熱이 없어지지 않아도 危殆롭다.

기침하면서 살이 빠지고 熱이 날 때에 脈이 堅急하면 죽고 皮肉이 뼈에 붙어도 죽는다.

熱病 七八日째에 마땅히 땀이 나와 하나 도리어 땀이 나지 않고 脈이 단절되면 죽는다.

몸이 瘦瘠하나 脈이 大하고 가슴이 답답하면 죽는다.

眞臟脈이 나타나면 죽는다.

【原文】

黑色이 起于耳目鼻하야 漸入口者는 死라 張口如魚하고 出氣不反者는 死라

循衣摸牀(1)者는 死라

妄語(2)錯亂(3)과 及不語者는 死나 熱病은 不在此例1)라

尸臭不可近者는 死라

面無光하고 牙齒黑者는 死라

髮直如麻하고 遺尿(4)不知者는 死라

舌卷(5)卵縮(6)者는 死라

面腫하고 色蒼黑者는 死라

五臟乃絶하고 神氣不守하야 其聲澌(7)者는 死라

目直視(8)者는 死라

汗出이나 身體不涼하고 加喘泄者는 死라

【註釋】

(1) 循衣摸牀(순의모상); 意識이 昏迷한 病人이 衣服이나 이불을 만지작거리고 혹은 寢牀의 가장자리를 문지르는 病證을 형용한 말이다.

(2) 妄語(망어); 妄言. 言語錯亂을 가리키며, 헛소리라고도 한다.

(3) 錯亂(착란); 뒤섞여서 어수선함

(4) 遺尿(유뇨); 遺溺라고도 한다. 睡眠중에 小便이 흘러나오는 경우, 정신이 昏迷할 때에 小便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경우, 정신이 들었을 때 小便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경우 및 小便이 잦으면서 小便을 참기 어려운 경우를 포괄한다.

(5) 舌卷(설권); 舌本이 말려서 잘 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卵縮(난축); 囊縮. 睾丸이 오그라드는 病證을 가리킨다. 대부분 足厥陰肝經의 病變으로 인해 발생한다.

(7) 澌; 散聲, 목설 시

(8) 目直視(목직시); 目睛을 돌리지 못하

는 것을 가리킨다.

【國譯】

검은 색이 귀·눈·코 부위에서 일어나 점점 입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기만 하고 들이 쉬지 못하면 죽는다.

循衣摸牀하면 죽는다.

헛소리와 말이 두서없어 혼란스럽거나 말을 하지 못하면 죽으나, 熱病에는 이 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체 냄새가 나서 가까이갈 수 없으면 죽는다.

얼굴에 光澤이 없고 齒牙가 검으면 죽는다.

머리카락이 삼실같이 곧고 遺尿하고도 알지 못하면 죽는다.

혀가 말리고 牽丸이 오그라들면 죽는다.

얼굴이 붓고 안색이 검푸르면 죽는다.

五臟의 氣가 이내 끊어지고 神氣가 지켜지지 않아 그 목소리가 쉬면 죽는다.

눈을 直視하면 죽는다.

땀이 나도 몸이 식지 않고 더하여 泄瀉하고 숨이 차기 까지 하면 죽는다.

第5篇 死絶脈類1)

【原文】

彈(1)石脈은 在筋肉間하고 舉按에 劈(2)劈然이라 魚翔(3)脈은 在皮膚하고 其本不動이나 而末强(4)搖하야 如魚之在水中에 身首帖然(5)이나 而尾獨悠揚(6)之狀이라 彈石魚翔은 皆腎絶也라

雀啄(7)脈은 在筋肉間하고 如雀之啄粟하야 連連(8)湊(9)指三五啄이라가 忽然頓(10)絶하고 良久復來라 屋漏脈은 在筋肉間

하고 如殘溜(11)之下하야 良久에 一滴濺起(12)無力이라 雀啄屋漏는 皆脾胃衰絶之脈이라

解索脈은 如解亂(13)繩之狀하야 指下散散하고 無復次第(14)라 蝦(15)游(16)脈은 在皮膚하고 始則 冉冉(17)不動이라가 少焉(18)에 瞥然(19)而去하고 久之(20)에 倏(21)爾(22)復來라 釜沸脈은 在皮肉中하고 有出無入하야 涌涌(23)如羹之上肥니 皆死脈也라

【校勘】

1) 死絶脈類; 蔣劉本에는 本篇이 없다.

【註釋】

(1) 彈; 鼓爪曰彈, 탈 탄

(2) 劈; 剖破, 쪼갬 벽

(3) 翔; 翱翔, 回飛, 뺑뺑 돌아날 상

(4) 强; 不柔服, 뻣뻣뻣할 강

(5) 帖然(첩연); 침착하여 편안한 모양 * 帖; 妥帖, 편안할 첩

(6) 悠揚(유양); 바람에 흔들거리는 모양

(7) 啄; 鳥食, 쪼 탁

(8) 連連(연연); 이어져 뺨침 * 連; 接也, 연할 연

(9) 湊; 聚也, 모일 주

(10) 頓; 遽也, 갑자기 돈

(11) 殘溜(잔류); 남아서 끈 물

(12) 濺起(천기); 물방울이 떨어졌다가 다시 뛰어 오르는 것 * 濺; 濺濺, 水疾流貌, 물 빨리 흐르는 모양 천. 水激, 뿌릴 천

(13) 解亂(해란); 解亂, 풀어져 어지러운

(14) 次第(차제); 순서, 차례

(15) 蝦; 蝦蟆, 두꺼비 하, 청개구리 하. 與蝦通, 새우 하

(16) 游; 浮行, 헤엄칠 유

(17) 冉冉(염염); 부드러운 아래로 늘어

진 모양 * 冉; 弱也, 약할 염

(18) 少焉(소언); 잠시 후에, 얼마 안 되어

(19) 瞥然(별연); 언뜻 보는 모양 * 瞥; 瞥然, 暫見, 언뜻 볼 별

(20) 久之(구지); 잠시, 또 시간이 조금 지남

(21) 倏; 倏의 俗字. 倏忽, 빠를 속, 잠깐 속, 문득 속

(22) 尔; 尔와 같다. 辭之必然, 語助辭, 어조사 이

(23) 涌涌; 湧湧. 솟아오르는 모습을 형용한 말 * 涌; 洶涌, 騰也, 물이 힘차게 솟을 용

【國譯】

彈石脈은 그 脈이 筋肉 사이에 있고 손가락을 들거나 누를 때 모두 쪼개지는 듯 손가락을 강하게 친다. 魚翔脈은 그 脈이 皮膚에 있고 그 本體는 움직이지 않으나 꼬리만 겨우 움직여서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몸과 머리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고 꼬리만 흔들거리는 모양이다. 彈石·魚翔脈은 모두 腎氣가 끊어진 것이다.

雀啄脈은 그 脈이 筋肉 사이에 있고 마치 참새가 모이를 쪼듯 연이어 손가락에 모여들어 3~5 차례 박동하다가 갑자기 끊어지고 한참 뒤에 다시 박동한다. 屋漏脈은 그 脈이 筋肉 사이에 있고 마치 추녀 끝에 남아서 권 물이 떨어지듯 하여 한참 있다가 한 방울이 다시 뛰어 오르나 힘이 없는 것이다. 雀啄·屋漏脈은 모두 脾胃의 氣가 衰弱하여 끊어진 脈이다.

解索脈은 풀어져 엉킨 새끼줄과 같아서 손가락 아래에서 흩어지고 또한 차례가 없는 것이다. 蝦游脈은 皮膚에 있고 처음에는 힘없이 움직이지 않다가 얼마 안 되어 언뜻

보이다가 사라지고 한참 뒤에 문득 다시 나타난다. 釜沸脈은 皮肉 속에 있고 脈이 나오기는 하나 들어가는 것이 없어서 끓는 국속의 고기점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으니 이상은 모두 死脈이다.

【考察】

『脈學輯要』에는 七怪脈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考察하기를 “위의 七怪脈은 원래 『察病指南』에 몇 가지 말로 간략하게 舉論한 것이나, 黎民壽의 『決脈精要』에 다시 偃刀·轉豆·麻促 3脈을 더하여 十怪脈으로 하였다. 吳崑의 『脈語』에 『素問·大奇論』의 浮合·火薪·散葉·省客·交漆·橫格·弦縷·委土·縣壅·如丸·如春·如喘·霹靂과 『難經』의 關格·覆溢을 採擇하여 24가지를 揭載하였다. 張璐의 『診宗三昧』에도 『內經』의 글을 널리 詳考하여 이를 상세히 논하였다. 내가 말한다면 死生을 決斷하는 것은 王叔和의 『脈經』 卷四 「診百病死生決 第七」과 卷五 「扁鵲診諸反逆死脈要訣 第五」等篇에 이미 모두 다 살펴 놓았다고 본다. 醫家가 平脈을 診脈할 수 있으면 모든 怪異한 脈을 반드시 分辨하여 알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에 怪脈의 무리들을 하나 하나 차례대로 말하지는 않았다²³⁾.”고 하여 怪脈 등 生死脈이 무척 많지만 일일이 다 分辨할 필요 없이 平脈을 제대로 診脈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丹波元簡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 『中醫診斷學』에는 “怪脈은 過去 文獻에 일률적으로 認識하기를 무릇 이러한 脈

23) “右七怪脈, 原于察病指南, 畧舉數說, 黎氏精要, 更增偃刀轉豆麻促三脈, 爲十怪脈. 吳氏脈語, 探索問大奇論浮合火薪散葉省客交漆橫格弦縷委土縣壅如丸如春如喘霹靂, 及難經關格覆溢, 而揭二十四數. 張氏診宗三昧, 亦博稽經文, 以詳論之. 余謂 決死生, 王氏診百病死生, 及扁鵲診諸反逆死脈要訣等篇, 已審且悉矣. 大抵醫家能診得恒脈, 則諸怪異脈, 皆可不須辨而知也. 故茲不逐一彙次云.”

朴晙 等; 譯釋脈學輯要,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153~154

象이 보이면 곧 藥으로 구제할 수 없고 반드시 죽게 됨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醫學 技術의 不斷한 發展을 따라 계속된 研究와 臨床 實踐을 거치면서 이미 새롭게 認識된 것이 있는데, 怪脈의 대부분은 心臟의 규칙적인 搏動이 失調된 脈象이고 그 가운데 또 대부분은 心臟의 器質性 病變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 외 소수의 機能性 장애가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다면 怪脈의 출현은 대부분 疾病이 이미 아주 중한 단계로 발전했음을 암시한다. 다만 반드시 죽게 되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치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²⁴⁾.”고 하여 어떤 病이든 病勢가 危重해져 心臟의 氣質의 病變이 발생하게 되면 怪脈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고 心臟의 器質的 病變이므로 대부분 죽게 됨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中醫診斷學』은 이렇듯 怪脈을 心臟의 器質性 病變이라는 현대 의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怪脈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第6篇 五藏動止脈1)

【原文】

凡人脈이 五十動에 不止者는 五藏에 皆有氣라 四十動에 一止者는 一藏無氣니 四歲死요 三十動에 一止者는 二藏無氣니 三歲死요 二十動에 一止者는 三藏無氣니 二歲死요 十動에 一止者는 四藏無氣니 歲中死라 病脈은 不在此例나 平人은 以此推之라

24) “怪脈, 過去文獻一向認爲, 凡見這些脈象, 就無可藥救, 必死無疑. 但隨着醫學技術的不斷發展, 通過不斷研究和臨床實踐, 已有了新的認識. 怪脈絕大部分是心滯失常的脈象, 而其中絕大部分又是心臟器質性病變所造成的. 也有少數是功能性的, 除少數功能性者外, 怪脈的出現, 豫示疾病已發展到極嚴重的階段. 但並非必死無疑, 仍應盡最大的努力進行救治.”

鄧鐵濤, 中醫診斷學, 知音出版社, 台北, 1989, p.257

【校勘】

1) 五藏動止脈; 蔣劉本에는 本篇이 없다.

【國譯】

무릇 사람의 脈이 50번 뛰는 동안에 그치지 않으면 五藏에 모두 氣가 있는 것이다. 40번 뛰다가 한 번 그치면 한 臟에 氣가 없는 것이니 4년 뒤에 죽고, 30번 뛰다가 한 번 그치면 두 臟에 氣가 없는 것이니 3년 뒤에 죽고, 20번 뛰다가 한 번 그치면 세 臟에 氣가 없으니 2년 뒤에 죽고, 10번 뛰다가 한 번 그치면 네 臟에 氣가 없는 것이니 그 해에 죽는다. 病脈은 이 예에 얽매이지 않으나, 正常人은 이러한 예를 따라 推定한다.

【考察】

『靈樞根結²⁵⁾』과 『脈經』 卷四 「診脈動止投數疏數死期年月 第六²⁶⁾」에서 拔萃 引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吳崑은 “『脈經診脈動止投數疏數死期年月 第六』에 ‘脈이 40번 박동하다가 1번 그치는 것은 한 臟에 氣가 없는 것이니 4년 뒤 봄에 풀이 날 때에 죽는다.’고 하여 이후로 診脈家들이 모두 ‘50박동에 그치지 않으면 正常人이고, 한 번 그치면 한 臟에 氣가 없어서 5년 뒤에 죽고, 40박동에

25) “五十動而不一代者, 五藏皆受氣. 四十動一代者, 一藏無氣. 三十動一代者, 二藏無氣. 二十動一代者, 三藏無氣. 十動一代者, 四藏無氣. 不滿十動一代者, 五藏無氣.”

王冰;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p.39

26) “脈來五十投而不一止者, 五藏皆受氣, 卽無病. 脈來四十投而一止者, 一藏無氣, 却後四歲, 春草生而死. 脈來三十投而一止者, 二藏無氣, 却後三歲, 麥熟而死. 脈來二十投而一止者, 三藏無氣, 却後二歲, 桑椹赤而死. 脈來十投而一止者, 四藏無氣, 歲中死, 得節不動, 出清明日死, 遠不出穀雨死矣. 脈來五動而一止者, 五藏無氣, 却後五日而死.”

王叔和; 脈經, 東洋醫學研究所, 大阪, 1981, p.33

한 번 그치면 4년 뒤에, 30박동에 한 번 그치면 3년 뒤에 죽는다.’고 하니 嗚呼라! 글에는 믿을 만한 것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있는 것이다. ‘肝絶은 8일 만에, 心絶은 1일 만에, 脾絶은 5일 만에, 肺絶은 3일 만에, 腎絶은 4일 만에 죽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믿을 만한 말이고, 믿지 못할 것은 ‘한 臟에 氣가 없으면 4년 뒤 봄에 풀이 날 때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사람에게 어찌 한 臟에 氣가 없는데 4년간이나 살 수 있는 理致가 있겠는가? 이러한 것이 바로 글에 있어서 모두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世上의 庸劣한 醫師들은 매번 이러한 몇 가지 말들에 집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것이 매우 심하니, 내 비록 見聞이 매우 固陋하나 分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²⁷⁾.”고 하였고, 張景岳도 『類經²⁸⁾』에서 같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滑壽도 本篇의 註釋에 “病脈은 이 예에 絜매이지 않으나, 正常人은 이러한 예를 따라 推定한다.”고 하였으니, 吳崑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第7篇 婦人脈法

【原文】

27) “『脈經』曰：脈來四十投而一止者，一臟無氣，却後四歲，春草生而死。自後，脈家皆曰：五十動不止者爲平，有一止者，一臟無氣，後五歲死，四十動一止者，四歲死，三十動一止者，三歲死。嗚呼，書有可信者有不可信者。肝絶，八日死，心絶，一日死，脾絶，五日死，肺絶，三日死，腎絶，四日死，此可信者也，不可信者，一臟無氣，却後四歲春草生而死，是也。人豈有一臟無氣，活四年之理。此，書之不可盡信者也，世之庸醫，每每執此數語，惑衆爲甚，某甚陋之，不得不辨。”

朴吳 等；譯釋脈語，大星文化社，서울，1997，p.82

28) “又按本篇，但言動止之數，以診五藏無氣之候，未嘗警言死期，而王氏脈經，乃添出死期歲數，曰：脈來四十投而一止者，一藏無氣，却後四歲春草生而死。脈來三十投而一止者，二藏無氣，却後三歲麥熟而死。……脈來五動而一止者，五藏無氣，却後五日而死。自後諸家言脈者，皆宗此說，恐未有一藏無氣而尚活四歲二藏無氣而尚活三歲之理，診者辨之。”

張介賓；類經，大星文化社，서울，1990，p.100

婦人女子가 尺脈常盛하고 而右手脈¹⁾大는 皆其常也라 若腎脈微澁커나 或左手關後尺內脈浮커나 或肝脈沈而急커나 或尺脈滑而斷絶不勻者²⁾는 皆經閉不調之候也라 婦人脈의 三部에 浮沈이 正等하고 無他病而不月¹⁾者는 妊也요 又尺數而旺者도 亦然이라 又左手尺脈이 洪大者²⁾는 爲男이요 右手尺脈³⁾이 沈實者²⁾는 爲女라 又經²⁾에 云 陰搏陽別³⁾을 謂之有子라 하니라 尺內陰脈搏手면 則⁴⁾其中에 別有陽脈也하야 陰陽相搏⁵⁾하니 故⁶⁾로 有子也라 凡女人天癸⁴⁾未行之時는 屬少陰하고 卽行은 屬厥陰하고 已絶은 屬太陰하니 胎產之病은 從厥陰이라 凡婦人室女⁵⁾病의 傷⁷⁾寒及諸寒熱氣滯엔 須問經水⁸⁾⁶⁾若何요 凡產後엔 須問惡露⁷⁾有無多少라

【校勘】

- 1) 脈; 蔣劉本에는 없다.
- 2) 者; 蔣劉本에는 없다.
- 3) 尺脈; 蔣劉本에는 없다.
- 4) 則; 蔣劉本에는 ‘而’로 되어 있다.
- 5) 搏; 蔣劉本에는 ‘平’으로 되어 있다.
- 6) 故; 蔣劉本에는 뒤에 ‘能’字가 있다.
- 7) 傷; 蔣劉本에는 없다.
- 8) 水; 蔣劉本에는 ‘事’로 되어 있다.

【註釋】

(1) 不月(불월); 經閉를 가리킨다. 간혹 月經이 매월 오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2) 經(경); 『素問陰陽別論篇』이다.

(3) 陰搏陽別(음박양별); ‘陰’과 ‘陽’은 부위에 따른 陰陽으로서 寸部의 脈은 陽, 尺部의 脈은 陰이다²⁹⁾. ‘陰搏陽別’이란 尺脈의 搏動이 有力하여 寸脈과 현저하게 區別되는

29) 金在根朴吳; 陰陽別論, 素問研究集成 第一卷,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益山, 2001, p.269

脈象을 말한다³⁰⁾. * 搏; 擊也, 칠 박

(4) 天癸(천계); 人體의 生長發育과 生殖機能을 促進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을 가리킨다. 腎精에서 根源하여 後天的인 飲食物의 精微에 의해 滋養되어 점차 充滿해진다. 또 月經을 가리킨다. 여기 天癸는 月經이다.

(5) 室女(실녀); 미혼녀

(6) 經水(경수); 月經의 별칭

(7) 惡露(악로); 분만 후에 胞宮 속에 남아 있는 餘血과 濁液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산후 2~3주 이내에 완전히 배출된다. 만약 2~3주가 지나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 그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病態에 속한다.

【國譯】

婦人과 女子가 尺脈이 항상 盛하고 右手脈이 大한 것은 모두 정상이다. 만약 尺脈이 微澁하거나 혹은 左手 關後 尺內의 脈이 浮하거나 혹은 肝脈이 沈하면서 急하거나 혹은 尺脈이 滑하나 斷絶되어 고르지 않은 것은 모두 經閉이거나 月經不調의 徵候이다. 婦人脈의 三部에 浮沈이 모두 고르고 다른 病이 없으면서 月經이 끊어지면 妊娠이고, 또 尺脈이 數하면서 힘이 있는 것도 妊娠이다. 또 左手 尺脈이 洪大하면 男兒를, 右手 尺脈이 沈實하면 女兒를 妊娠한 것이다. 또 『素問陰陽別論篇』에 “陰搏陽別을 妊娠한 것”이라고 하였다. 尺內 陰脈이 손을 치면 그 가운데 별도의 陽脈이 있어서 陰과 陽이 서로 부딪히므로 妊娠한 것이라고 한다. 무릇 女子의 月經이 나오기 전에는 少陰에 속하고 곧 月經이 시작하면 厥陰에 속하고 月經이 이미 끊어졌을 때는 太陰에 속하니, 胎産의 病은 厥陰을 따른다. 무릇 婦人과 處

女病의 傷寒과 모든 寒熱, 氣滯는 반드시 먼저 月經이 어떠한가를 물어야 하고, 무릇 産後는 惡露의 有無와 多少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第8篇 小兒脈法1)

【原文】

小兒三歲以內2)는 看虎口三關(1)紋色(2)하니 紫는 熱이요 紅은 傷寒이요 青은 驚風이요 白은 疳病(3)이라 惟黃色이 隱隱(4)하고 或淡紅이 隱隱은 爲常候也나 至見黑色則危矣라 其他紋色이 在風關爲輕이요 氣關漸重이요 命關不治3)라

及三歲以上이라야 乃以一指로 按三關하야 寸關尺之4)三關이라 常以六七至로 爲率하니 添則爲熱이요 減則爲寒이라 若脈浮數하면 爲乳癩(5)風熱或五臟壅이요 虛濡는 爲驚風이요 緊實은 爲風癩이요 緊弦은 爲腹痛이요 弦急은 爲氣不和요 牢實은 爲便秘요 沈細는 爲冷이요 大小不勻은 爲5)崇脈(6)이요 或小或緩或沈或短6)은 皆爲宿食不化7)라 脈亂(7)하고 身熱汗出하고 不食食即吐는 爲變蒸(8)也라 浮는 爲風이요 伏結은 爲物聚(9)요 單細는 爲疳勞(10)라 小兒가 但見憎寒壯熱하면 卽須問曾(11)發斑疹(12)否라 此는 大法也라

【校勘】

- 1) 小兒脈法; 蔣劉本에는 ‘小兒脈’으로 되어 있다.
- 2) 內; 蔣劉本에는 ‘下’로 되어 있다.
- 3) 不治; 蔣劉本에는 ‘尤重也’로 되어 있다.
- 4) 之; 蔣劉本에는 ‘爲’로 되어 있다.
- 5) 爲; 蔣劉本에는 없다.

30) 金在根朴長; 陰陽別論, 素問研究集成 第一卷,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益山, 2001, p.266

- 6) 短; 蔣劉本에는 ‘細’로 되어 있다.
- 7) 化; 蔣劉本에는 ‘消’로 되어 있다.

【註釋】

(1) 虎口三關(호구삼관); 小兒指紋·虎口紋·虎口三關脈紋이라고도 한다. 주로 3세 이하 小兒의 食指와 엄지손가락 사이의 表皮에 나타나는 靜脈을 관찰하는 것으로 小兒의 食指를 三節로 나누어 食指的 掌側에 이어진 第一指節을 風關, 第二指節을 氣關, 第三指節을 命關이라고 한다. 指紋이 風關에 나타나는 것은 病이 비교적 가벼우며 表部에 있는 것이고, 氣關까지 뻗쳐 나가면 病勢가 조금 심하며, 命關까지 나가면 病勢가 더욱 심한 것이다. 만약 指紋이 風·氣·命의 三關을 뚫고 지나가 일직선으로 손끝까지 이르는 것을 ‘透關射甲’이라 하며, 대개 病勢가 심하고 豫後가 危重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四診과 결합시켜 전면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2) 紋色(문색); 小兒 虎口脈紋의 색깔을 가리킨다. 手筋色·虎口脈色이라고도 한다.

(3) 疳病(감병); 疳. 脾胃의 運化機能失調로 야기되는 慢性榮養障礙性 病證으로서, 5세 미만 小兒에게 많이 발생한다. 비록 病因은 다양하나 病變의 關鍵은 모두 脾胃에 있다.

(4) 隱隱(은은); 은은하다. 분명하지 않다. 어슴푸레하다. 보일락 말락 하다.

(5) 乳癩(유간); 胎癩. 初生兒에 있어서 100일 이내 발생하는 癩證을 말한다.

(6) 祟脈(수맥); 변화무쌍하여 病證과 부합되지 않는 脈象의 一種이다. 先人들은 祟鬼·客忤 등이 이 脈을 나타나게 하는 病因이라고 誤認하여, 이 脈을 鬼祟脈이라고도 하였다. * 祟; 神禍, 빌미 수

(7) 脈亂(맥란); 大小長短遲數 등이 일

정하지 않은 脈象이다.

(8) 變蒸(변증); 西晉의 王叔和로부터 비롯된 말로서, 隋唐代의 醫家들에 의해서 널리 전해졌다. ‘變’이란 小兒의 情智가 變(달라짐)하는 것이고, ‘蒸’이란 小兒의 血脈이 蒸(뜨거워짐)하는 것이다. 이는 小兒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에 큰 病이 없으면서도 身熱, 脈亂, 汗出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으로 발육에 수반된 자연적인 생리현상이다.

(9) 物聚(물취); 食滯

(10) 疳勞(감로); 疳勞. 重症 肺疳에 속한다. 15세 이하의 소아가 病이 든 경우를 ‘疳’이라 하고, 16세 이상이 病이 든 경우를 ‘癆’라 한다. 疳·癆는 모두 氣血이 虛弱하여 脾胃가 病든 것으로 寒熱이 往來하고 몸이 마르며 얼굴에 血色과 氣色이 없으면서 疳熱로 인한 骨蒸과 함께 咳嗽, 盜汗 등의 症狀이 수반된다.

(11) 曾; 嘗也, 일찍 증

(12) 斑疹(반진); 熱病을 앓는 동안 體表에 나타나는 斑과 疹 두 證候를 가리킨다. 斑點이 점차 커져 片狀을 이루는데, 마치 비단 무늬와 같으며 만졌을 때 손에 닿는 느낌이 없는 것을 斑이라 하고, 형태가 마치 좁쌀과 같고 돌출해 있으며 손에 닿는 느낌이 있는 것을 疹이라 한다.

【國譯】

小兒 세살 이내는 虎口三關 무늬와 色을 살피니 紫色은 熱이고 紅色은 傷寒이고 青色은 驚風이고 白色은 疳病이다. 오직 隱隱한 黃色이나 혹은 隱隱한 淡紅色이 나타나면 正常的인 徵候이나 黑色이 나타나게 되면 危險한 것이다. 기타의 무늬와 色이 風關에 나타나면 가볍고 氣關이면 점점 危重해지고 命關에 있으면 治療할 수 없다.

세살 이상이라야 바로 한 손가락으로 三關을 눌러 診脈하여 寸關尺의 三關이다. 보통 6~7번 박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 기준에 더하면 熱이고 덜하면 寒이다. 만약 脈이 浮數하면 乳癩, 風熱 또는 五臟이 壅塞한 것이고 虛濡는 驚風이고 緊實은 風癩이고 緊弦은 腹痛이고 弦急은 氣가 調和롭지 못한 것이고 牢實은 便秘이고 沈細는 冷病이고 大小가 일정하지 않으면 祟脈이고, 혹 小하고 혹 緩하고 혹 沈하고 혹 短한 것은 모두 宿食이 消化되지 않은 것이다. 脈이 亂하고 몸에서 熱이 나면서 땀이 나고 飲食을 먹지 못하면서 먹으면 곧 吐하는 것은 變蒸이다. 浮脈은 風이고 伏結脈은 食物이 凝滯한 것이고 단순히 細한 脈은 疳勞이다. 小兒가 寒氣를 몹시 싫어하고 熱이 무척 심한 것만 보인다면 곧 일찍이 斑疹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가를 반드시 問診해야 한다. 이것이 小兒脈의 大法이다.

【考察】

小兒의 경우 손목의 요골동맥의 寸口脈을 통해 診脈을 하게 되는 기준을 보통 세 살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脈學輯要』에서 “程若水の 『醫穀』에 말한 것을 詳考해 보건대 ‘갓난아이는 하나의 핏덩어리이기 때문에 病形이나 病證이 없고 脈도 없다.’고 하였으나, 이제 시험해 보면 小兒가 태어난 뒤에는 전신에 脈의 박동이 없다가 젖을 한번 먹게 된 후에야 脈이 겨우 나타난다. 脈의 박동이 나타나면 診脈할 수 있거늘 또한 어찌 반드시 3세가 되어야만 診察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³¹⁾?”라고 하여 태어나 젖을

먹기 시작하면서 脈搏이 나타나게 된다면 세 살이란 나이에 구애하지 않고 요골동맥의 寸口脈을 통해 診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참고할 만한 主張이라 생각된다.

第9篇 脈象統會1)(1)

【原文】

浮沈은 以舉按輕重으로 말이니 浮甚하면 爲散이요 沈甚하면 爲伏이라

遲數은 以息至多少로 말이니 數甚하면 爲疾이요 數止하면 爲促이라

虛實微洪²⁾은 以虧盈으로 말이니 虛는 以統孔濡하고 實은 以該⁽²⁾牢革하고 微는 以括弱³⁾이라

弦緩⁴⁾滑澁은 以體性으로 말이니 弦甚하면 爲緊이요 緩止하면 爲結이요 結甚하면 爲代며 滑은 以統動이라

長短은 以部位之過不及으로 말이라

大小는 以形狀으로 말이라

【校勘】

1) 脈象統會; 蔣劉本에는 ‘診家宗法’으로 되어 있다. 또 그 아래에 작은 글자로 “按: 此篇所列六條, 卽予位:數:形:勢之義也.”라고 되어 있다.

2) 微洪; 蔣劉本에는 ‘洪微’로 되어 있다.

3) 微以括弱; 底本에는 없고 蔣劉本에는 있다. 文脈上 蔣劉本을 따랐다.

4) 緩; 蔣劉本에는 ‘緊’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統會(통회); 未詳. 序文과 跋文에도 ‘樞要’와 對句되어 나오는 것인데, 합당한 우리말을 찾을 수 없었다.

(2) 該; 兼也, 검할 해

31) “案程若水云, 初生芽兒, 一塊血也, 無形證也, 無脈『醫穀』, 今試, 小兒生下, 周身無脈動, 及乳瀆一進而脈纒現. 至其現則可診候, 亦何必三歲也.”

朴冕 等; 譯釋脈學輯要,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146.

【國譯】

浮·沈은 손가락을 들거나 누르는 輕重으로 말한 것이니, 浮가甚하면 散이 되고 沈이甚하면 伏이 된다.

遲·數은 呼吸에 따라 이르는 脈의 多少로 말한 것이니, 數이甚하면 疾이 되고 數하다 그치면 促이 된다.

虛·實·微·洪은 脈管의 비고 차는 것으로 말한 것이니, 虛는 芤와 濡를 統攝하고 實은 牢와 革을 겸하고 微는 弱을 包括한다.

弦·緩·滑·澁은 脈體의 性質로 말한 것이니, 弦이甚하면 緊이 되고 緩하다 그치면 結이 되고 結이甚하면 代가 되며 滑은 動을 包括한다.

長·短은 部位를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으로 말한 것이다.

大·小은 脈의 形狀으로 말한 것이다.

第10篇 脈象歌1)

【原文】

洪大芤虛脈과 弦緊實牢革이여

微小緩弱濡는 咸(1)以類相索(2)이라

浮沈은 輕重求요 遲數은 息至別이라

澁滑은 論難易요 長短은 部位切(3)이라

動伏은 緣(4)燥烈(5)이요 結促은 由止歎(6)이라

疾細은 羸不足이요 代散은 乃羸劣(7)이라 內外并上下와 皮肉及筋骨이여

或以體象微(8)하고 或以至數屬(9)이라 多之血氣盈하고 小則榮衛縮이라

至哉나 陰陽蘊(10)이여 爰以贊化育(11)이라

學人이 能了知면 照如秉宵燭(12)이라

【校勘】

1) 脈象歌; 蔣劉本에는 本篇이 없다.

【註釋】

(1) 咸; 皆也, 다 함

(2) 索; 求也, 찾을 색

(3) 切; 切脈, 진맥할 절

(4) 緣; 循也, 좇을 연

(5) 烈; 熱也, 더울 열

(6) 歎; 息也, 쉬 힐

(7) 羸劣(이럴); 여위고 허약하다. * 羸; 弱也, 약할 이

(8) 微; 細也, 가늘 미

(9) 屬; 聚也, 모을 축

(10) 蘊; 與縕通, 그윽할 온

(11) 化育(화육); 天地自然이 萬物을 만들어 자라게 함

(12) 宵燭(소축); 촛불 * 宵; 夜也, 밤야 * 燭; 燈燭, 촛불 축

【國譯】

洪·大·芤·虛脈과 弦·緊·實·牢·革이여.

微·小·緩·弱·濡는 모두 類別로써 서로 찾는 구나.

浮脈과 沈脈은 舉按의 輕重으로 구하고 遲脈과 數脈은 呼吸에 따른 脈搏數로 나눈다.

澁과 滑은 脈의 갈끄럽고 매끄러운 것으로 논하고 長脈과 短脈은 脈의 部位로써 잡는다.

動과 伏은 燥烈로 좇고 結과 促은 멈추어 그치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疾과 細는 乖離하여 不足하고 代와 散은 곧 衰弱하다.

內外와 上下, 皮肉과 筋骨이여.

혹은 體象으로 細分되고 혹 搏動數로 모아진다.

많으면 血氣가 가득 찬 것이고 작으면 榮衛가 줄어든 것이다.

至極하구나 陰陽의 그윽함이며. 이에 天地의 化育을 돕는구나.

배우는 사람이 이를 이해하여 알 수 있으면 마치 촛불을 잡은 듯이 밝기도 하구나.

IV. 結論

본 論文의 「持脈手法」은 診脈하는 方法, 四時의 脈과 胃氣, 體格과 男女에 따른 脈象의 差異, 病脈의 上下와 左右, 脈을 잡는 要點, 여러 脈象의 같고 다른 점의 比較, 脈의 提綱인 浮·沈·遲·數·滑·澁의 六脈, 舉·按·尋의 指法, 脈의 上·下·來·去·至·止, 脈의 表裏·虛實과 陰陽을, 「兼見脈類」는 2가지 이상의 脈이 서로 兼하여 나타나는 病脈을, 「諸脈宜忌類」는 여러 病證의 宜當한 脈과 꺼려야 할 脈象을, 「驗諸死症類」는 여러 종류의 死脈을, 「死絶脈類」는 七怪脈을, 「五藏動止脈」은 五臟脈이 박동하고 그치는 것에 따른 五臟氣의 有無와 그 豫後를, 「婦人脈法」은 婦人의 여러 脈을, 「小兒脈法」은 小兒의 여러 脈을 논하였고, 「脈象統會」와 「脈象歌」를 통해 여러 脈象을 要約하였다.

본 論文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第1篇 持脈手法

第1章 診脈하는 方法

『內經』, 『難經』, 『脈經』 등에는 寸·關·尺의 位置와 主病에 대한 言及은 있어도 구체적인 診脈 方法에 대한 얘기는 없으며, 『王叔和脈訣』과 『崔氏脈訣』 등에는 약간 비치긴

하나 歌訣로 되어 너무 간략하다. 다만 宋代 朱肱의 『南陽活人書』에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있으며 本章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시대적 순서로 볼 때, 滑壽가 朱肱의 『南陽活人書』를 拔萃 引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第3章 人臂長短四時男女

本篇과 『醫學入門』 등에서 제시한 男女脈의 차이는 하나의 표준은 될 수 있으나, 체질의 특성, 환경 등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第4章 脈의 上下左右

左右의 脈의 차이에 따라 左脈의 不和가 表病·陽病·四肢病, 右脈의 不和가 裏病·陰病·臟腑病을 主宰한다는 것은 左人迎右氣口의 說처럼 論難의 여지가 있다.

第5章 六脈(浮沈遲數滑澁)

第1節 六脈을 잡는 理致

많은 醫家들이 脈象의 煩雜함을 簡明하게 설명하고자 根幹이 되는 脈을 제시하였는데 位·數·形·勢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周學海와 『中醫診斷學』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滑壽의 六脈도 이런 기준에서 합리적인 설명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第6章 持脈의 舉·按·尋

滑壽는 寸·關·尺에서 손가락 끝으로 脈象을 살피는 指法을 舉法·按法·尋法이라 하여

提示하였다. 물론 기존 脈學書에서 言及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의를 내리고 정리해서 기준을 삼았다는 것이 중요한데, 후세 醫家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第7章 上下來去至止

脈을 살필 때 上·下·來·去·至·止를 整理하여 提示한 것은 滑壽가 처음인 것 같다.

第9章 脈의 陰陽相乘

脈位의 陰陽을 보면 첫째 左右에서 左手脈은 外感을 主管하니 陽이고 右手脈은 內傷을 主管하니 陰이 될 것이며, 둘째 寸·關·尺 觀點에서 보면 寸部는 陽이고 尺部는 陰이며, 셋째 浮·中·沈 觀點에서는 浮部는 陽이고 沈部는 陰이 될 것이다.

人體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浮沈의 陰陽이 지켜져서 陽位에는 陽脈, 陰位에는 陰脈이 나타나는 것이 大經大法인데, 人體가 病이 들면 '短小'한 陰脈이 陽部인 '皮膚之間'에서 보이고 '洪大'한 陽脈이 陰部인 '肌肉之下'에서 보이는 '陰乘陽'과 '陽乘陰'이라는 陰陽의 相乘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第2篇 兼見脈類

左人迎右氣口는 王叔和가 創立한 說로 後世 醫家들은 대부분 이를 追從하였지만 人迎은 結喉 양방의 動脈, 氣口는 양손의 寸關尺으로 본 것이 『內經』의 뜻과도 符合되며 妥當한 주장이다.

“喜則氣緩脈散 …… 驚則氣亂脈動.”은 『素問·舉痛論』의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

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炆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 「舉痛論」은 九氣에 따른 氣 순환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고 滑壽는 그 변화에 따른 脈象까지 제시한 것이다.

“上盛則氣高, 下盛則氣脹, 代則氣衰, 細則氣少.”는 『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오는데, 여기 上과 下는 寸口脈을 가리키는 것으로 역대 註釋家들이 일치하지만, 王冰·張志聰·高世祚은 上을 '寸', 下를 '尺'으로 본 설명이 타당한 것 같다.

“浮大, 傷風鼻塞.”이라 하였는데, 「內外傷辨」에 “外傷은 코로 證들이 나타나므로 傷寒은 코가 막히고 傷風은 콧물을 흘리며 비록 먹지는 못하나 또한 맛은 안다.”고 한 것을 보면 '傷風'에는 '流涕'가 발생하여야 하고 '鼻塞'은 본래 '傷寒'에 속한다. 本篇에 있어서는 風邪와 寒邪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第5篇 死絕脈類

怪脈 등 生死脈이 무척 많지만 일일이 다 분별할 필요 없이 平脈을 제대로 診脈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丹波元簡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中醫診斷學』에서 어떤 病이든 病勢가 危重해져 心臟의 氣質的 病變이 발생하게 되면 怪脈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고 心臟의 器質的 病變이므로 대부분 죽게 됨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현대 醫學적인 해석을 통하여 怪脈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第6篇 五藏動止脈

『靈樞根結』과 『脈經』 卷四 「診脈動止投數疏數死期年月 第六」에서 拔萃 引用한 것이다.

한 臟에 氣가 없이 몇 년간이나 살 수 있는 理致가 없다고 한 吳崑과 張景岳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第8篇 小兒脈法

小兒의 경우 손목의 요골동맥의 寸口脈을 통해 診脈을 하게 되는 기준을 보통 세 살로 하고 있지만, 태어나 젖을 먹기 시작하면서 脈搏이 나타나게 된다면 세 살이란 나이에 구애하지 않고 요골동맥의 寸口脈을 통해 診脈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序文에서 밝혔듯이, 元末 明初의 醫家인 滑壽의 『診家樞要』는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번잡하고 정리되지 않아 임상적 실용도가 떨어졌던 『脈經』과 암송하기 쉽고 간결하여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많은 오류와 천박한 문장으로 비판을 받았던 高陽生의 『脈訣』 사이에서 그 중심을 잡아줄 만한 脈書로 판단된다. 현재 많은 診斷法의 발달과 함께 體得하기 어려운 脈診을 한의사들이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診家樞要』 이외에도 많은 脈書들이 있으나 제대로 國譯되어 읽히지 않고 있으니, 이에 脈診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기 이전에 보다 임상적 실용적인 脈書들을 찾아 國譯하여 널리 보급하는 길이 脈診 부활의 출발점이 될 것 같다.

參考文獻

1. 滑壽. 訂補名醫指掌附刻診家樞要, 正校名醫指掌, 上海廣益書局, 癸丑文化社, 上海, 中華民國 11年(1922年)
2. 滑壽. 診家樞要, 蔣力生·劉春援 校注, 歷代中醫名著文庫,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高文鑄 主編, 華夏出版社, 北京, 1997
3. 王叔和. 脈經, 東洋醫學善本叢書,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4. 沈炎南.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5.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6. 王冰. 內經素問, 臺灣中華書局, 臺北, 1992
7. 王冰.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8. 丹波元簡. 素問識·素問紹識·靈樞識·難經疏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9. 華佗. 中藏經,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5
10. 滑壽. 難經本義, 集文書局, 臺北, 1982
11. 凌耀星. 難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12. 尹暢烈, 金容辰. 難經研究集成, 大田, 주민출판사, 2002
13. 李景榮.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14. 李景榮. 千金翼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15. 朴晔. 診斷學權輿, 大星醫藥社, 서울, 2000
16. 朴晔, 金興濟, 全鍾站. 譯釋脈學輯要·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17. 朴晔. 國譯瀕瀕脈學·四言學要·奇經八脈攷附脈訣攷證, 大星文化社, 서울, 1992
18. 李樞. 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大星文化社, 서울, 1990
19. 高陽生. 王叔和脈訣, 欽定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第四冊, 醫部彙考七十七, 脈法七, 大星文化社, 서울, 1986
20. 李仲梓. 診家正眼, 中國書店, 北京, 1987
21. 東醫寶鑑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鑑, 許浚 著, 法仁文化社, 서울, 1999
22.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90
23. 張介賓. 景岳全書·上, 大星文化社, 서울, 1988
24. 崗學海. 重訂診家直訣, 中國醫學大成, 曹炳章 原輯, 張琨 主校,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25. 鄧鐵濤. 中醫診斷學, 知音出版社, 臺北, 1989
26. 洪元植, 尹暢烈. 中國醫學史, 一社, 서울, 2001
27.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醫聖堂, 서울, 1987
28.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29.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益山, 2001
30. 홍사석. 이우주의약리학강의, 선일문화사, 서울, 1987
31.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1
32. 成百萬, 朴晔. 脈經 24種 이외의 常見主病脈, 大韓韓醫診斷學會誌, 第7卷1號, 서울, 2003
33. 金憲. 脈經·診脈方法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2
34. 양건일. 脈經·寸關尺 臟腑配屬과 陰陽病脈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2

35. 羅慶燦, 王叔和 脈經의 文獻의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서울, 1995

參考辭典

1. 天字傳統文化研究所·동의학연구소. 新編中國醫學大辭典, 謝觀 編著. 여강출판사, 서울, 2001
2.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서울, 2002
3. 金賢濟, 洪元植. 韓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1983
4. 金赫濟, 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95
5. 張三植. 大漢韓辭典. 集文堂, 서울, 1983
6.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94
7. 高大民族文化研究所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2003
8. 金元中. 虛詞辭典. 玄岩社, 서울, 1990
9. 金榮華. 韓國俗字譜. 亞細亞文化社, 서울, 1986
10. 作者未詳. 宋元以來俗字譜. 韓國學古典叢書. 亞細亞文化社, 서울, 1976
11. 原一祥, 任繼學, 黃龍, 高光震. 漢英雙解中醫大辭典. (Chinese-English Dictionar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